

부채·경영난 기업 48곳, 신용등급 줄이하향 공포

신평 3사, 강등 리스트 작성

롯데계열사·금호전기 등 대상
등급 하향 땀 자금조달 초비상
신용스프레드 금융위기후 최고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강등 위기에 놓였다. 경기침체와 자금 시장 경색 여파로 내년엔 줄이하향할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국내 신용평가 3사(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는 등급 하향 대상인 기업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등급 상향 조정 기업 수도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 신용등급을 사수하려면 기업들이 경영난이나 유동성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본지가 국내 신용평가 3사의 회사채

신용평가 3사 등급 하향 검토대상 기업 (12월 7일 기준)

구분	회사명	현재 등급	전망	신용평가사
FB(금융채)	롯데캐피탈	AA-	부정적	한국기업평가
IFSR	푸르덴셜생명보험	AAA	하향검토	한국신용평가
회사채	여천NCC	A+	부정적	한국신용평가
회사채	금호전기	B-	부정적	한국신용평가
회사채	효성화학	A	부정적	한국신용평가
SB(일반사채)	HDC현대산업개발	A	부정적 검토	한국기업평가
회사채	HDC	A	부정적	한국신용평가
BW(신주인수권부사채)	비보존계약	B-	하향검토	나이스신용평가

및 기업어음(CP) 신용등급 하향 검토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48개 기업이 강등 후보군으로 올라온 상태다. 업체별(중복 포함)로 보면 한기평이 29곳으로 가장 많고, 한신평은 27곳으로 나타났다. 나신평은 일일 기준으로 2곳을 신용등급 하향 조정 대상으로 설정했다.

신평사들은 앞서 10월 푸르덴셜생명보

험을 하향 검토 대상에 등록했다. 롯데계열사, 여천NCC, 금호전기, 효성화학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나신평은 전날 수시평가를 통해 넥센타이어의 회사채(선순위) 장기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 이후 수년간 판매량이 감소하며 영업수익이 저조한 가운데 해상운송비 부

담, 원재료인 천연고무 가격 상승 등으로 자체 현금 창출을 통한 재무안정성 개선이 크게 약화된 영향이다.

넥센타이어는 최근 5년(2016~2020년) 평균 EBITDA 마진율이 9.0%로 우수했으나 올해 3분기에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3.4%로 전환했다. 투자금도 대부분 외부 차입에 의존 중이다. 차입금이 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이 자체 이익만으로 경영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신용평가사들은 통상 연간 결산실적을 바탕으로 반기 말에 장기 등급을, 연말에 반기 또는 3분기 실적으로 단기 등급 정기 평가를 내놓는다. 넥센타이어의 장기 신용등급 평가가 12월에 이루어진 점은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시장 경색이 이례적으로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실제로 신용등급이 하향된 기업은 늘고, 상향된 기업은 줄어드는 추세다. 신용등급이 하향된 기업 수 대비 상향 조정된 기업 수 비율을 뜻하는 '등급 상·하향 비율'은 올해 하반기 1.10배(상승 21곳·하락 19곳)로 지난해 같은 기간(1.29배, 상승 22곳·하락 17곳) 대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등급 상·하향 비율은 0에 가까울수록 하향 조정이 많다는 의미다.

기업 신용등급이 연이어 떨어지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기업의 회사채 조달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다시 추가 신용 등급 강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인 신용스프레드는 전날 1.754%포인트(p)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정희민 기자 hihello@

상위 20% 자산 16.5억 하위 20%와 64배 차이

부동산 급등에 불평등 심화

올해 자산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 간 자산 격차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자산 불평등이 심화한 영향이다. 7일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자산 상위 20%(자산 5분위) 가구의 자산은 평균 16억5457만 원이었다. 하위 20%(자산 1분위) 가구(2584만 원)의 64.0배에 이르는 규모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62.4배) 이후 최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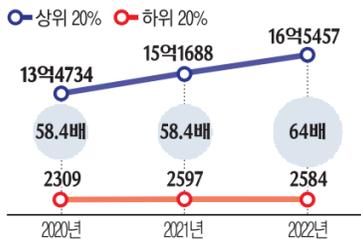
격차가 크게 벌어진 데에는 올해 초까지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은 상위 20%의 자산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비교 시점인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7.47% 상승했다. 상위 20%의 자산은 1년 전보다 1억 3769만 원(9.1%) 늘었다. 증가분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1억 2853만 원(10.7%) 증가했다. 5분위 중에서는 98.6%가 부동산 자산을 보유했다. 상위 20% 대부분이 부동산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1분위는 10.1%에 그쳤다.

1분위의 자산은 1년 전보다 13만 원(0.5%) 줄었다. 부동산 자산이 9.3% 감소하는 등 분위 가운데 유일하게 전체 자산이 줄었다. 통계청은 젊은 세대의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종=정대환 기자 vishalist@

자산 상·하위 20% 가구 격차 (단위: 만원)



내년 봄 실내 '노마스크' 정부가 내년 1~3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공식화 했다. 7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해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서점을 방문한 시민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조현호 기자 hyunho@

“철강·석화도 업무명령”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8일 소집한다. 정유를 제외한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상황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8일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정유 분야도 업무개시명령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품질주유소가 81개소로 전일 대비 15개소가 감소했고 정유 출하량은 평시의 83% 수준을 보이면서 빠졌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업계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관련기사 8면

임시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것으로 보이며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이 심의된다. 현재 정유 분야는 출하량이 평시 수준으로 돌아온 반면 철강 분야는 피해가 커지고 있어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구현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화물연대 조합원은 개인사업자라 운송거부를 오래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철강, 정유, 석유화학 분야의 피해를 검토해 현재 상황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일단 회의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철강 분야 기업들은 2주 정도의 감내 여력을 갖고 사전 대응을 했다. 하지만 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라 일부 업체의 경우 생산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철강은 포스코, 현대제철 등이 포함돼 있다. 철강 분야 화물연대 노조원은 약 6000명에 달해 시멘트(약 2500명)보다 훨씬 많다. 석유화학은 수출물량의 경우 평시 대비 5%, 내수는 65% 수준으로 누적된 출하 차질로 일부 업체는 이번 주말부터 생산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회심의 ‘이민 카드’로... 尹, 인구소멸 해결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선다. 윤 대통령은 내년 인구미래위원회로 재편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한다. 이민 확대에 초점을 맞춘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의결이 첫 무대가 된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저출산위기는 인구미래위 재편이 완료되는 대로 4차 기본계획 수정 작업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내 마칠 것으로 보인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마련된 4차 기본계획을 ‘고령사회 적응’에 방점을 찍는 현 정부 방향에 맞춰 재구조화하는 것으로, 수정 기본계획 의결을 위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의사봉을 칠 예정이다.

나경원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4차 기본계획에 따른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의 효과가 미미했기

내년 4차 기본계획 수정 완료 저출산 대신 이민 확대 초점

때문에 인구미래위 재편 취지처럼 극복보다는 완화와 적응에 무게를 두려 한다”며 “이에 따라 과감한 정책 변화를 담아 내년도 상반기 내에 기본계획을 수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미래위 위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통령 주재 회의를 한 번 할 것”이라며 “수정 기본계획을 의결하는 회의에도 윤 대통령이 당연히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도 “저출산위 공식회의가 내년엔 열린다면 윤 대통령이 위원장인 만큼 직접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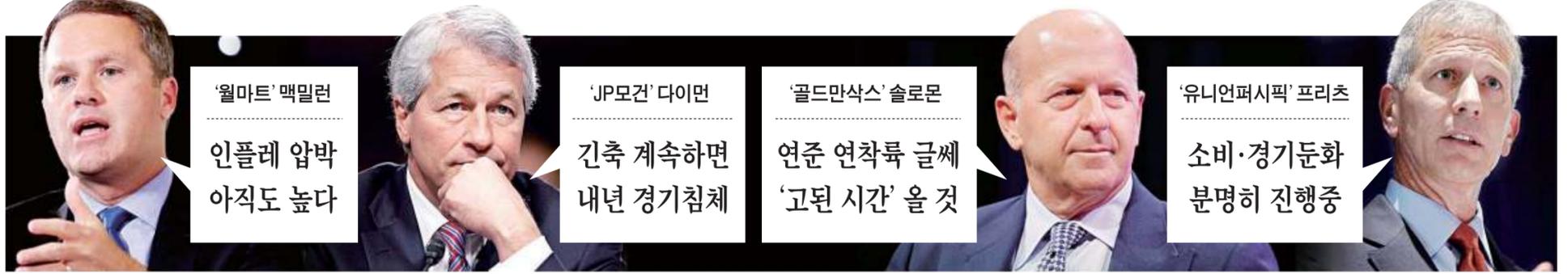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4차 기본계획 수정 방침과 수정 계획안 의결 등 총 두

차례 저출산위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인데,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이민 확대 문제를 거론할지 주목된다.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향, 즉 윤석열 정부의 인구정책의 핵심이 이민인 만큼 저출산위 회의에서 언급을 피하기 어렵다.

이민 확대는 윤 대통령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신설 추진을 주도하고, 저출산위와 국민통합위 등에서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다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그간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민청도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을 검토하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윤 대통령이 저출산위에 직접 참석해 이민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지 관심이 쏠리는 배경이다.

김윤호 기자 uknow@

“산타는 없다”... 경제거물 대못에, 다리 풀린 美증시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최고경영자(CEO) 4인이 잇달아 경기침체를 경고했다. 경제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뉴욕증시는 이틀째 하락해 ‘산타렐리’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6일(현지시간) 대형 유통 체인 월마트의 더그 맥밀런 CEO는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며 “이들은 구매와 관련해 더 까다롭게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맥밀런 CEO는 “건조식품과 가공식품, 소비재는 인플레이션이 특히 심한 분야”라며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짐에 따라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

다”고 설명했다. 월가를 대표하는 CEO들은 잇따라 경기침체를 직접 거론하며 경종을 울렸다.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미하거나 심각한 경기침체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차입자들 압박을 높이는 연준의 기준금리는 5%를 향해 가고 있다”면서도 “이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 자산을 잠식하는 인플레이션은 내년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 역시

금리상승 지속에 수요·지출 감소 수익 줄어든 기업, 해고 거세져 잇단 경중에 뉴욕지수 내리막길

블룸버그통신을 통해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앞으로 고된 시간이 올 것이라는 점을 가정해야 한다”며 “기업은 재정과 조직 규모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솔로몬 CEO는 “사업은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은행은 앞으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며 “특히 연착륙을 장담할 수 없다. 이는 회사가 몇 가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 이코노미스트들은 여전히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미국은 2023년 경기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형 철도회사 유니언퍼시픽의 랜스 프리츠 CEO는 “연준은 경기 둔화와 수요 위축으로 우리 모두를 공격하려 한다”며 “분명히 소비는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지출과 수요는 확실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EO들의 불안한 전망에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다. 이번 주 들어 이틀 새 S&P500지수는 3.2%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3.9% 내렸다.

기업 해고도 계속되고 있다. 전날 펍시

코가 북미 본사 직원 수백 명을 해고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 이날은 모건스탠리가 글로벌 인력의 약 2%를 감축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월가 은행들도 올해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긴축에 기업 간 거래 등이 크게 줄어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멈췄던 직원 해고를 재개했다.

한편 블룸버그이코노믹스(BE)는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2.4%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 추정치인 3.2%보다 낮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199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고대영 기자 kodae0@

美 빅스텝·차이나런 ‘변수’... 코스피 ‘우왕좌왕’

〈글로벌 자본 사이탈〉

연준, 내년까지 긴축 장기화 전망 중, 봉쇄 완화로 외국인 국내 이탈 전문가들 “완만한 침체로 그칠 것”

연말 ‘산타렐리’(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과 신년 초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 대신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보다 길고, 높을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시장은 갈피를 못 잡고 출렁이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12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이후 불확실

성이 다소 소그라들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코스피지수는 전날에 이어 이를 연속 2400을 밑돈 2382.81에 마감했다. 코스피는 한 달여간 2400을 웃돌며 산타렐리 기대감을 높였지만, 금리 정책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 낙폭을 키워가고 있다.

경제 지표 호조 속에 연준이 기대와 달리 더 강한 긴축을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증시 하방 압력을 높였다. 고강도 긴축은 경기를 압박해 R의 공포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

경기침체는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관건은 침체의 강도다. 얇은 침

체에 그칠 가능성이 커보이지만, 향후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놓고 시장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코스피가 박스권에 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준보다 중요한 건 경기침체 강도다. 이달 안에 판가를 나간 어렵고, 내년이 되어야 그 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으로 박스권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2300을 하단으로 놓고 연저점은 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인



상 사이클 불확실성으로 경기침체 우려 역시 동반 증폭되고 있지만,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 폭 확대에도 이번 침체사이클은 급격한 침체보다 완만한 침체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금융시장이 금리 정책과 경기 불확실성의 혼재 구간을 지나고 있지만, 12월 FOMC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

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차이나런’(글로벌 자본의 중국 이탈 현상)으로 반사이익을 보던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이탈 현상도 변수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며칠 사이 외국인이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다른 나라는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빠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차이나런도 일부 있었다”면서 “최근 중국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 연구원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향후 우리나라 수출 둔화를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쁜 현상은 아니다”면서 “하락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태성 기자 tskwon@·박상민 기자 si2020@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도로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를 실시합니다.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한 소음허용기준이 적용되며 소음도 등급(AA/A)을 표시합니다.
20년부터 신형 승용자동차용 타이어에 적용되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9년에는 모든 자동차용타이어에 적용됩니다.
소음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용 타이어는 생산 유통을 할 수 없으며, 소비자 구매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타이어에 소음등급이 표시됩니다.

적용대상

승용차용 타이어	경량·소형 승용 및 화물차용 타이어	승합·대형 승용 및 화물차용 타이어
20년 신차 24년 기준차 26년 운행차	22년 신차 26년 기준차 28년 운행차	27년 신차 28년 기준차 29년 운행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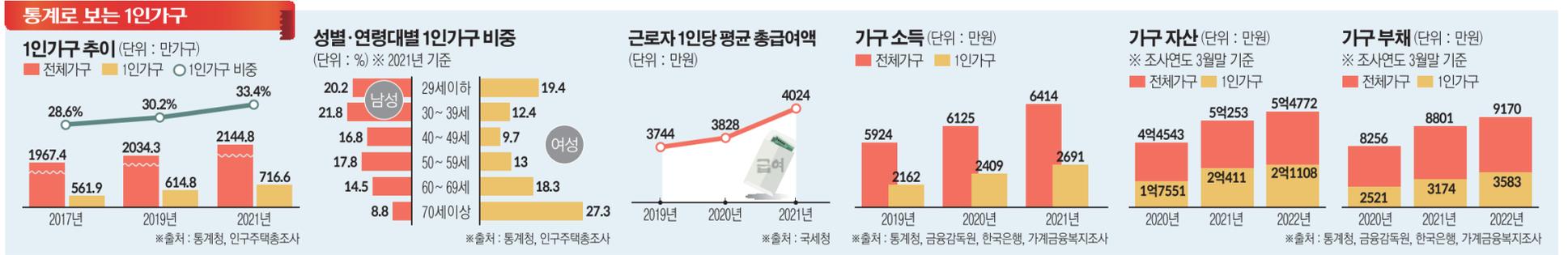
*신차: 자동차 재원리변화가 신규 부여 또는 변경되는 자동차
*기준차: 제도 시행일 이전에 출고된 자동차와 차량이 동일한 자동차

소음허용기준

승용자동차용 타이어	공칭단면너비(Kmm)	소음허용기준(dB)	비고
185이하		70	강화(추가하중)타이어는 소음허용기준에 +1dB시벌을 더한다.
185 초과 245 이하		71	
245 초과 275 이하		72	
275 초과		74	

타이어 소음도 표시 기준

직장인 연봉 4000만원 돌파... 1인가구 연소득 2691만원



국세청·통계청 통계 발표

지난해 1인당 연평균 총급여액은 전년 대비 196만 원 증가한 4024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1인 가구는 10가구 중 7가구가 연간 소득이 3000만 원을 밑돌았고, 평균 부채는 3583만 원이었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세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통계청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국세통계와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를 공개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024만 원으로 전년 3828만 원 대비 196만 원(5.1%)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472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서울(4657만 원), 울

평균 연소득 전년비 5.1% 증가 세종 4720만원...서울·울산 순

1인가구 비중 33.4% 역대 최대 67.7% 年3000만원도 못 벌여 부채증가율 12.9% 소가구 3배

산(4483만 원) 순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억9600만 원이며, 지역별로 서울(3억9400만 원), 부산(2억4940만 원), 대구(2억4930만 원) 순으로 높았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세미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인 주택의 2021년 평균 양도가액은 3억4700만 원으로 전년 대

비 600만 원(1.7%) 줄었다. 지역별 평균 양도가액은 서울이 7억12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 3억7100만 원, 경기 3억 6500만 원 순으로 높았다.

양도자산 건수는 168만 건으로 전년 대비 22만5000건(15.5%) 증가했다. 자산 종류별 양도 건수는 토지 72만4000건, 주식 43만1000건, 주택 35만4000건 순으로 많았다.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46만4000명(2.4%) 증가했다.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949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147만4000명(18.4%)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33.4%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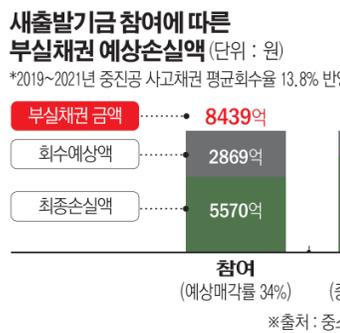
연령별로는 29세 이하가 1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70세 이상(18.1%), 30대(17.1%), 60대(16.4%), 50대(15.4%), 40대(13.3%) 등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 1인 가구는 30대(21.8%)가 많았고, 여자는 70세 이상(27.3%)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26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소득 구간별 1인 가구 비중은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46.7%)로 가장 많았고,

1000만 원 미만(21.0%),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19.8%), 5000만 원 이상~7000만 원 미만(7.6%) 등의 순이었다. 10가구 중 7가구(67.7%)는 연 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인 셈이다.

올해 1인 가구 자산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2억9170만 원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평균 부채도 3583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1인 가구의 전년 대비 부채 증가율은 12.9%로 전체 가구 부채 증가율(4.1%)의 3.1배에 달했다. 부채 중에서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금융부채(2731만 원)가 1년 전보다 17.4% 늘어났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정대한 기자 vishalist@



중진공, 부실채권 '헐값 매각' 논란 새출발기금 손실액 3년간 5600억

매각률 34% 적용 손실 눈덩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새출발기금에 매각할 부실채권에 34%의 매각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매각률을 적용하면 중진공이 부실채권을 넘기고 떠나는 손실 규모는 3년간 5600억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최근 수립한 새출발기금매각업무에 대한 세부운영 방안에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연간 부실채권 규모를 약 2810억 원으로 추산했다. 부실우려채권 규모는 3403억 원으로 파악했다. 중진공은 새출발기금이 운영되는 3년간 부실채권과 부실우려채권 규모가 각각 8439억 원,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원금 감면을 위해 마련된 배드뱅크 성격의 기금이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폐업자 및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의 '부실우려차주'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총 30조 원, 지원 대상은 최대 40만 명이다.

특히 중진공은 이번 방안에서 8400

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새출발기금에 넘기고 2869억 원만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매각률을 34%로 설정해서다. 90일 이상 장기연체된 신용채권의 경우 통상 35% 이하로 채권가격이 설정되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경우 중진공의 부실채권 손실 규모는 5600억 원에 육박한다.

중진공은 손실 규모가 70%에 달하는데도 새출발기금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단이 자체적으로 회수할 때보다 오히려 '손실을 감축'할 수 있어서다. 지난 3년간(2019~2021년) 중진공의 사고채권 평균회수율은 13.8%에 그친다. 이 회수율을 반영하면 중진공이 부실채권으로 직접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1165억 원에 불과하다. 손실 규모가 무려 7200억 원을 넘게 된다. 새출발기금에 채권을 넘길 때보다 손실액이 1600만 원가량 늘어난다. 중진공 입장에선 34%에 채권을 넘기는 게 이익인 셈이다.

다만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통상 보유자산이 없거나 연체 기간이 길어 회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채권은 더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정상화가능성을 가진 채권이 함께 묶이면 30%대의 매각률도 헐값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구매상한선 준수, 건전한 여가생활의 시작입니다

내년에도 콘텐츠 소비 'W곡선'... OTT '이탈주의보'

콘텐츠산업 결산·전망

올해 매출액 7.4% 늘어 147兆
수출 130억달러·종사자 66만명
우크라이나전쟁·美 기준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 영향 투자위축 가능성
독점작 확보·무료 요금제 도입 등
OTT, 소비 위축 대응안 마련해야

세계 경제 침체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내년도 콘텐츠산업 이용자의 소비 심리 역시 위축과 회복을 반복하는 변동성 큰 'W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예감이 나왔다. 넷플릭스, 티빙 등 OTT 플랫폼은 이용자의 지속적인 이탈을 뜻하는 '이탈주의보'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7일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은 서울 중구 CKL스튜디오에서 올해 콘텐츠산업 결산보고회 및 내년 콘텐츠산업의 핵심이 될 흐름을 예측해 발표하는 '콘텐츠산업 2022년 결산 2023년 전망'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2022년 콘텐츠산업은 지난해 대비 규모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콘진원은 2022년 매출액을 146조9000억 원으로 예측해



지난해 대비 7.4%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수출액, 종사자 수 역시 지난해 대비 1% 중반대의 증가율을 보이며 각각 130억 1000만 달러, 65만 7000명에 달한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진 정책본부장은 "2021년 게임, 웹툰, OTT 등 비대면 콘텐츠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으로 성장세를 주도한 흐름이 2022년에도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년에는 이 흐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송 본부장은 "급격한 성장세가 다소 완만곡선에 들어섰다"면서 콘텐츠 이용자의 소비심리가 위축과 회복을 반복

하는 'W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기준금리를 0.75%씩 인상하는 미국의 자이언트스텝 등 "대외경제의 영향을 받아 콘텐츠산업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넷플릭스, 티빙 등 국내외 OTT는 구독을 멈추고 플랫폼을 떠나려는 이용자를 붙잡아야 하는 상황에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탈주의보'를 내년도 콘텐츠산업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로 꼽았다.

넷플릭스가 지난 11월 광고를 시청하고 콘텐츠를 무료로 보는 요금제를 도입한 사례, OTT 플랫폼들이 타사에서는 공개되지 않는 독점 오리지널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등이 대표적인 대응 전략이 될 것으로 손꼽혔다.

부정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콘진원 정보분석팀은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전체적인 소비자심리지수와 교양, 오락, 문화생활비 지출전망 동향은 서로 엇갈릴 수 있다고 짚었다. 경제가 어려워도 콘텐츠는 즐기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송 본부장은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야 할 시기"라고 제언했다.

콘텐츠 산업 내의 다양성과 포용 정책은 보다 확대될 거라고 봤다. 이는 새로운 콘텐츠 타깃층을 발굴해야 하는 콘텐츠산업계의

필요와도 맞물린다. 올해 초 BL(Boys Love) 열풍을 몰고 온 '시멘틱 에러'나 장애인 주인공 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이미 성 소수자나 장애인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 큰 인기를 누리며 있다.

전창영 콘진원 정보분석팀 선임연구원은 "NC소프트는 게임 속 캐릭터의 성비를 동일하게 하고, 바비 인형을 만드는 마텔은 휠체어를 탄 바비나 백반증을 앓는 바비 등의 상품을 내놓으며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면서 "콘텐츠의 장벽을 낮추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꽃 기자 pgot@

반도체 한파에... 삼성·SK, 4분기 실적 '뽕뽕'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요 감소
삼성전자, 영업이익 40% 급감 전망
SK하이닉스, 적자 전환 가능성
전문가 "내년 하반기 업황 정상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국내 반도체 양대산맥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수요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반도체 보릿고개'가 최대 내년 2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수요 감소로 반도체 재고가 날이 쌓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연말 메모리 공급사들의 완제품 재고를 D램 14주, 낸드플래시 17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 2012년 D램 시장의 과점화 현상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재고다.

재고가 쌓이면서 메모리 반도체 평균판매가격(ASP)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4분기 서버용 D램 가격이 25.3% 하락할 것으로

봤다. 낸드플래시 가격 역시 20~25% 하락할 것이라면서, 4분기 글로벌 낸드플래시 매출이 전 분기 대비 20% 이상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이익은 크게 뒷걸음질 칠 전망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은 8조 257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의 경우 -2532억 원으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실적 컨센서스(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인수한 솔리다임(옛 인텔 낸드사업부)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재고 부담이 커지면서 적자 폭을 키웠다. 솔리다임이 속한 SK하이닉스 미국 법인의 올해 1~3분기 누적 순손실은 8717억 원에 달한다. 1분기 1574억 원, 2분기 1009억 원에서 손실 규모가 점차 확대됐다.

최도연·남궁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역사상 가장 빠른 수요 감소 속도, 가장 높은 재고 부담으로 삼성전자 외 모든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고점(2022년 2분기) 이후 불과 두 개 분기 만

에 적자 전환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내년에도 메모리 시장 악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주요 반도체 관련 시장조사 업체들은 최근 내년 반도체 시장의 역성장을 경고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내년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을 5960억 달러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전망치 6180억 달러 대비 3.6% 감소한 수치다. 또 다른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세계 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도 내년 반도체 시장 매출이 올해 대비 4.1% 감소하며 역성장할 것으로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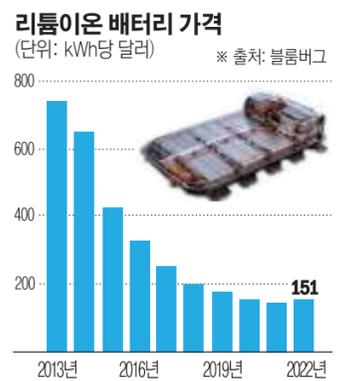
업계에서는 '반도체 보릿고개'가 적어도 내년 2분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메모리 계약 가격은 고객사 보유 재고의 큰 영향을 미치는데, 메모리 업체의 직·간접적 감소 등으로 고객사가 보유한 메모리 재고 수준이 낮아지는 시점이 바로 내년 하반기 무렵이다.

채민욱·박상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2022년 연말 공급사 재고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겠지만, 내년 3분기부터 공급사 재고가 줄어들어 4분기부터는 수급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다숨 기자 citizen@

배터리 가격 12년 만에 반등 전기차 대중화 '급브레이크'

리튬 10배 등 원료가격 급등
배터리 평균가격 1년새 7% ↑
업계 "가격 경쟁력 확보하려면 kWh당 100달러가 적정선"



글로벌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배터리 핵심 원료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전환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글로벌 리튬이온 배터리 평균 가격이 1년 새 7% 뛰어 킬로와트시(kWh)당 151달러(약 19만 8500원)까지 올랐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ENF)가 배터리 가격 연간상승률 조사를 시작한 2010년 이후 12년 만의 첫 오름세다.

핵심 원료 가격이 줄줄이 급등하면서 배터리 가격을 밀어올렸다. 올해 리튬 가격은 지난해 초 이후 10배가량 뛰었고 니켈은 75% 상승했다. 코발트 가격도 2020년 평균 대비 두 배 이상 높다. 그동안 생산이 증가하면서 가파르게 하락했던 배터리 가격이 핵심 원료 가격 급등으로 상승 전환한 것이다.

배터리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BENF는 내년에도 배터리 가격이 kWh당 152달러 선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리튬 생산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4년이나 배터리 가격이 하락한다는 추산이다. 세계 메이저 리튬 생산업체들은 미국과 유럽의 치솟는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다고 밝혔다. 서구권 국가들

은 배터리 광물의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

배터리 가격 상승 여파는 산업 전반에 번질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는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등 모든 제품의 필수 부품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전환도 타격이 불가피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새 전기차 모델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는 kWh당 100달러를 전기차 가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정선으로 보고 있다. BENF는 배터리 가격이 kWh당 100달러 선까지 내리는 시점을 종전 예상보다 2년 늦춘 2026년으로 제시했다.

세계 전기차 업계가 중국산 LFP 배터리 사용을 늘리면서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 상승 폭을 제한할 수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불확실성이 큰 상태다. LFP 배터리는 리튬, 인산, 철 세 가지 원소로 구성돼 비싼 니켈과 코발트를 사용하는 배터리보다 저렴한 대신 주행거리가 짧다. 배터리 가격 변동성이 커지자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광산에 직접 투자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김서영 기자 0jung2@

'유리천장' 깨는 30대 그룹... 女 사외이사 46% 늘었다

자본법 개정 후 38명 늘어 120명
관료 출신 감소 학계 출신은 증가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30대 그룹의 여성 사외이사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30대 그룹 중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219개 기업의 사외이사 780명의 출신 이력을 조사한 결과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

전인 지난해 3분기 대비 올 3분기 여성 사외이사는 82명(10.6%)에서 120명(15.4%)으로 38명 늘어 4.6%포인트(p) 증가했다.

출신별로 관료는 193명(24.7%)으로 전년 동기 201명(26.1%) 대비 8명 감소하며 4% 줄었다. 반면 학계 출신은 지난해 279명(36.2%)에서 올해 294명(37.7%)으로 5.4% 증가했다.

리더스인덱스는 "올해 8월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으로 인해 여성 사외이사가 증

가하면서 여성 인력풀이 적은 관료, 재계 출신이 줄어들고 인력풀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계나 변호사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계와 관료 다음으로는 재계 출신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재계 출신 사외이사들은 지난해 12.3%(95명)에 비해 0.8%포인트 낮은 11.5%(90명)로 감소했지만 두 자릿수 비중을 차지했다.

이다숨 기자 citizen@

“가상자산 기준 모호한데 과세라니... 투심 얼어 붙을 것”

‘2년 유예’ 법안 처리 안되면... 내년부터 세금 부과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를 두고 결론이 쉽게 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야당 의원들은 과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돼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가라앉은 시장 분위기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부터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올해 안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250만 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에는 2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올해 테라-루나 사태부터 시작된 크립토 윈터 상황에서 과세까지 실행하면 투자 심리가 더 가라앉을 거라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과세를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아직 업권법(디지털자산법)도 제정되지 않은 데다가 크립토 윈터 상황이라 업계가 생존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인들이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에서 P2P 거래를 한 경우나 에어드랍, 하드포크 및 채굴 자산 등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에어드랍을 경품으로 보느냐, 소득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 기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현재는 가상자산에 과세

250만원 이상 소득 ‘20% 세율’ 업계 “크립토 윈터로 생존 걱정 과세 기준 미비, 정치권 잘못”

조세 전문가들은 엇갈린 의견 “이익 있으면 당연히 세금 내야” “시장 악화로 과세 실익 없을 것”

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과세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며, 지난 기간 동안 과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정부와 여야 잘못이지 투자자들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조세 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그동안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다고 말한다. 장혜영 의원은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이미 2020년 과세안을 마련한 상황에서 또 과세를 유예해 달라고 하는 건 (정부나 업계가) 얼마나 방만하게 준비했는가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서도, 세부 기준 마련보다는 개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 기준이나 원칙에 대한 논의는 원론적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회 개정안 통과되어야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안창남 강남대

해외 주요국 가상자산 과세 현황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한국
대여소득	종합과세	종합과세	종합과세	종합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양도소득	단기: 종합과세 장기: 분리과세	종합과세	단기: 종합과세 장기: 비과세	단기: 종합과세 장기: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공제	장기자본이득 4만1675달러까지 영세율	20만엔 미만	1만2300파운드 (전체 자본이득)	단기: 600유로 미만 양도 소득/ 장기: 비과세	250만원 기본 공제
이월공제	기한없이 허용	불가	기한없이 허용	단기 자본손실 이월공제 허용	불가
다른 투자자산과 손익통산	허용	불가	장기 자본손익 비과세, 비공제	장기 자본손익 비과세, 비공제	불가

* 국내 세액: (총수입금액-필요경비-기본공제액 연250만원) X 0.2, 2년 유예 법안 계류 중 *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세무학과 교수는 “이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면서 “시장 상황이 어렵다는 주장은 이익이 안 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과세 기준 체계가 없다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 이미 2020년에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원칙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면 과세하는 건 맞다고 본다”면서 “다만 시기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결

국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건데, 현재 시장 상황에서 차익을 본 사람을 찾기 힘들 만큼 시장이 안 좋아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분석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 흐름을 감안했을 때 기본적으로 당장 과세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종적으로 여야가 합의해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규제가 너무 강하면 해외 거래소에 비교해 역차별 가능성이 있어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간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과세 제도가 해외 주요국 대비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세를 늦추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결정을 내리니 국민적 갈등만 생기고 조세 불확실성이 생기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이시은 기자 zion0304@

국세청 “연도별 증가 올랐으면 과세” 최악 땀 돈 까먹고도 세금폭탄 우려

일각 “‘손익통산’ 허용해야” 주장 스테이킹·채굴자산·에어드랍 등 가상자산별 과세 방안도 마련해야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전문가와 투자자들 사이에 입장 차가 분명하게 갈리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과세 시행 전 명확한 기준과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취득 가격 기준 마련을 포함해 전반적인 세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가상자산을 무형 자산이 아닌 투자 상품으로 보고, 손익 통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제시한 가격 산정 방식은 해당 연도 증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오르내리는 가격 속에 손해를 입어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KDA) 회장은 “만약 비트코인을 4500만 원에 샀다고 가정해 보자. 올해 말에 가격이 2500만 원으로 내려갔다가 내년 말에 3500만 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할 경우, 1000만 원 손실이 났는데도 소득세 165만 원을 내야 한다”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손익통산과 이월 공제 등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특히 1년 이상의 장기자본이득에 대해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독일은 비과세)는 일본뿐이

며,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제도 개선 요구가 큰 상황이다.

스테이킹 된 코인, 디파이 등 신규 파생상품 및 대여 소득의 과세 기준도 해결할 문제다. 채굴을 통해 얻은 가상자산과 하드포크, 에어드랍의 과세 기준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반면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2010년대 중반 이전부터 가상자산 유형별 과세를 위한 근거법을 마련했다.

채굴의 경우, 해외 주요국은 개인의 채굴로 인한 소득과세를 해당 채굴행위의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비사업소득으로 나누어 과세한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에서는 가상자산 채굴로 인해 새로 생성된 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 시기의 시가로 과세한다. 반면 국내 소득세법 체계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직 불분명하다.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내역과 개인 지갑을 통해서 이뤄지는 거래는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FTX 사태로 발생한 국내 개인 투자자 피해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거래소들은 소득세법에 따라 거래 내역 등의 자료를 분기별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있지만, 외국 거래소들은 이 같은 의무에서 제외됐다.

한 중소 거래소 관계자는 “이미 바이낸스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가뜩이나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현행법상 과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이 떠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에너지 다이어트 10

겨울철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요령!

- 겨울철 실내온도**
18°C~20°C 유지하기
- 집에서도 내복이나 카디건, 무릎담요 등 온(溫)맵시 실천하기**
- 전력피크 시간* 대 전기사용 자제하기**
*9:00~10:00, 16:00~17:00
- LED 등 고효율 조명으로 선택하기**
- 여름철 사용한 에어컨의 플러그 뽑기**

- 전기 난방기 사용 자제하기**
- 냉장고의 냉장실은 여유 있게, 냉동실은 꽉 차게 유지하기**
- 사용하지 않는 방의 조명은 끄기**
- 전기장판 온도는 한 단계 낮게 조절(강->약)하여 사용하기**
-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도시가스를 아끼면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 나만 알기 아까운 에너지 캐쉬백!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 ☑ 신청기간: '22.12월 ~ '23.1월 (2개월)
- ☑ 참여대상: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사용자 (취사용 제외)
- ☑ 신청방법: 가스 캐쉬백 사이트를 통해 가입 (11월말 공제) • 신청자 선착순 2만명에 한해 방한 용품 지급 예정
- ☑ 캐쉬백 지급 대상: 전년 동기 대비 7% 이상 절감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 • 절감량(㎡) × 지급단가(원/㎡)

전기 아끼고 에너지캐쉬백 받자!

<가입하기>

- ☑ 가입대상: 효율적 에너지 사용에 의지가 있는 개별 가정, 공동주택 관리주체
- ☑ 가입기간: '22.10.31 ~ '23.1
- ☑ 캐쉬백 지급 금액: 가입 절감량(kwh) × 30원 (단기) 구간별 정액지급(20~400만원)
- 최소 절감률 3% 이상 달성 필요, 최대 지급 금액은 절감률 30%에 해당하는 양만큼 지급

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국회, 명단 공개 추진



친윤계 주축 국민의힘 공부 모임 출범 국민회의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부 모임 '국민공감'이 7일 출범했다. 윤혁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투톱' 권성동·장제원 의원은 회원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출범식에는 참석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안철수 의원도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공감은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65명이 참여하는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관심법

국토부 홈페이지 게재 법안 발의 "단순 망신주기" 반대 목소리도 "세입자 개개인에 위험 고지"를

국회에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되돌려주지 않는 '나쁜 집주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선 단순 망신주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등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이 맞선다.

7일 국회 의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도시보증법 개정안' 3건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1건이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조문 등을 신설해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공개 항목에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일 등이 있다.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사의 채무 변제 등 후속 조치가 어렵고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잇따라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이달 들어선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정부 의견과 그간 소위 논의를 종합해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 등을 담아 개

정안을 대표발의했다.

9월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 발표에 힘입어 국토법안심사소위에 서도 한 차례 논의되기도 했다. 당시 소위 속기록을 살펴보면, 국회는 보증금 미반환 금액 공개 기준 등 이점이 제기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2억 원부터 공개'와 같은 획일적인 기준보다 △아파트·다세대 등 주택 유형 △수도권·지방과 같은 지역별 세부 접근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보 공개 실효성 의문과 함께 위험 정보 판단을 세입자에게 맡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 국민 공개가 아니라 HUG가 임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자에게 위험 고지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 망신주기에서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명단 공개를 반대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소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차 계약을 하고 보증보험을 때려 올 때 HUG가 '귀하가 계약을 맺고자 하는 이 임대인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정보를 주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HUG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0억 원에서 2019년 386억 원, 2020년 1226억 원, 지난해 3569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1~7월 미회수금액은 3059억 원으로 지난 한 해 미반환 보증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두 건 이상 갚지 않은 다주택자는 349명이었고,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금액은 6398억 원에 달했다.

유헤림 기자 wiseforest@



“주호영, 김종인의 혼수정치 연상” 비윤·친윤 안 가리고 비난 ‘붓물’

주호영 'MZ 대표론' 후폭풍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쏘아 올린 'MZ세대 인기론'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7일 여권 안팎에서는 주 원내대표를 향한 공개적 비난이 붓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주 원내대표에게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상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거침없는 '혼수 정치'를 구사하던 김 전 위원장의 모습과 당권 주자들에게 '성에 안 차지 않는다'는 작심 비판을 쏟아내는 주 원내대표가 묘하게 닮았다는 분위기다.

주 원내대표는 3일 대구지역 언론인 모임 초청 토론회에서 "차기 당 대표는 MZ세대에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하고 공천에서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 공천을 해야 한다"며 "국회 지역구 의석 절반이 수도권인 만큼 수도권에서 대치가 되는 대표여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당대표 요건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일명 "차기 당대표는 이래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무리 원내대표라도 전당대회 날짜도 안 잡힌 시점에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면서 뭐라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5선 중진의 혼수 정치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에서다.

이를 의식한 듯 동료 의원들이 가장 먼저 비판하고 나섰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내부 총질보다 더 나쁜 것이 내부 디스"라고 비난했다. '원조 윤혁관' 장제원 의원도 7일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말씀을 해서 우리 당의 모습만 자꾸 작아지게

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하소연했다.

'팔순의 원로 정치인' 김 전 위원장도 도를 넘은 꾸짖음으로 당내 의원들의 미움을 샀다. 그는 지난해 5월 당을 떠난 뒤에도 "과거 정치와 인연이 없는 사람을 대표로 뽑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며 초선 당 대표론에 힘을 실었다. 당시 권영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정히 불편하다"며 공개적으로 반감을 표출했다. 조경태 의원도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때 "그 분이 (김종인 전 위원장) 향후 당에서 특별히 할 역할이 있겠냐"며 견제구를 날렸다.

주 원내대표가 '친윤 색채' 등 계파색이 열린 점도 김 전 위원장과 맞닿은 부분이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선청으로 당이 내용에 휩싸였을 때 당내 분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물로 꼽혔다. 8월 이전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언론 보도 당시 '역시 주호영'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하지만 이러한 유연함은 당내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방증한다. 정치권에서는 주 원내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에 직접 출마할 수도 있고,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과 연대할 수 있다는 설이 돌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선거의 왕'이자 '철새'라는 상반된 별명을 가진 정치인이다. 그는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서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시절에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여야를 넘나드는 킹메이커답게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등 세 대통령이 그의 손을 거쳐 갔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KB 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디폴트옵션의 시대, 든든한 퇴직연금 공유해 드릴까요?



디폴트옵션의 시대에는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은행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퇴직연금,
든든하게 KB국민은행과 함께하세요

**디폴트옵션의 시대에도
역시 KB국민은행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 퇴직연금 DC/IRP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상의필 제2022-3778(2022.11.29) 유효기한 (2023-11-28)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 가입 전 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전용상담센터(1599-00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 국민은행**

“확진자 안 줄었다”... ‘실내 벗기’ 내년 2월 이후로

이달 말 ‘의무 조정 로드맵’ 발표 위험도·시설별 해제방안 담길 듯 7차 유행 다음 달까지 지속 예상 ‘해제 선언’ 대전·충남 입장 선회

“이번 주 금요일 국무총리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와 15일 공개 토론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 마스크 의무 조정 로드맵을 발표한다. 로드맵에는 코로나19 위험도에 따른 시설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위중·중증환자와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이 활용될 전망이다. 방역지표가 기준인 만큼, 이행시기는 유동적이다.

백 청장은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고, 아직 2차 백신 접종 등으로 보다 많은 고연령층의 접종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행 시기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기는 2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1월 5주차(11월 27일~12월 3일) 일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주간 재원 중 위중증환자, 일평균 사망자, 감염 재생산지수(Rt) 등 주요 방역지표는 안정

세를 보였으나, 12월 1주차(4일~) 들어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11월 4주차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3.29%로 전주보다 1.19%p 올랐고, BN.1 검출률은 11월 5주차 13.2%로 전주보다 5.5%포인트(p) 상승했다. BN.1은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기존 오미크론(BA.1)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75(일명 켄타우로스)의 하위변이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7차 유행은 내년 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낮은 추가접종률, 6차 유행 후 기간 경과에 따른 자연면역 감소, 연말 모임·행사와 3월(밀폐·밀집·밀접) 환경 증가 등 계

절적 요인이 주된 위험요소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현재 정점으로 보지 않고 조금 더 증가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지자체 차원에서 ‘마스크 해제’를 선언했던 대전시와 충청남도도 입장을 선화했다. 권병기 방역지원단장은 “중대본을 통해 단일 방역망을 가동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고, 그에 대해서 지자체의 이의는 없었다”며 “현재 해당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해제 방침을) 철회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기가 사실상 2월 이후로 미뤄졌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마스크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던 대전시와 충청남도도 사실상 입장을 철회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브리핑에서



막 오른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에서 관람객들이 VR 게임 체험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레고랜드 사태’ 후폭풍에... 지자체, 채권발행 엄격관리

행안부 ‘채무관리 강화방안’ 지방·공사채 증권 빠른 상환 위해 시중금리보다 낮게 공적자금 지원 내년 1분기 만기 채권에 우선 도움

권은 은행 대출로 전환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방채·공사채 상황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낮게 공적자금 770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2023년 1분기 만기도래 채권을 우선 지원한다. 또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방채·공사채 증권의 신규 발행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금고는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지방채무 관리도 강화한다. 2019년 25%였던 차환채 인정 비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100% 수준으로 올라왔으나,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2024년 80%, 2025년 50%, 2026년 30%까지 내린다는 목표다.

레고랜드 사태로 불거진 채권과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의 채권 발행에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보증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중앙부처에 고지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기존에 발행한 채권은 적극 상환하도록 유도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2022년 지방재정위 관리위원회 열고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논의된 채무관리 강화방안은 단기 유동성 대응, 지방채무 관리 강화, 지방채무 관련 지방재정 제도개선 등 크게 3가지다.

먼저 단기 유동성 대응과 관련해서는 앞서 행안부가 이달 9일 발표한 단기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올해 말과 내년 초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공사채 증권은 최대한 상환하고, 남은 지방채 증권은 금고의 저리 대출, 공사채 증

또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최초 발생뿐 아니라 금액과 내용 변경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다. 보증채무 관련 특이동향은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 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증채무가 포함된 지자체 투자사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지방재정과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재정위기 징후를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위관리제도 지표에 보증채무를 반영하기로 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석화 공장 셧다운 ‘초읽기’... 타이어 추가감산

화물연대 파업 피해 3.5兆 석유화학, 출하차질 장기 누적 적재공간 부족... 가동중단 검토 정유업계, 기름대란 우려 커져 타이어, 생산량 4분의 1로 감축

단되면 하루 평균 1238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파업 후 2주를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오늘부로 2주가 넘어가면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리 준비해둔 야적지와 창고도 거의 다 차서 이대로 며칠만 지속되면 공장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평중 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대다수 업체에서 재고가 누적돼 더는 쌓아둘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며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업계는 기름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유가 정보 플랫폼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재고가 소진된 주유소는 78곳이다.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군용 탱크로리(유조차) 등을 긴급 투입했지만, 재고 소진 주유소는 전날 같은 시간 대비 3곳만 줄어든 수준이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화물연대 비가입 기사를 위주로 긴급 수송에 나서고 있지만, 기사들의 피로도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대체 수송 차량이 줄면 재고가 떨어지는 주유소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타이어업계는 쌓이는 재고를 감당 못

해 감산에 들어갔다.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30일 생산량을 기존의 70%로 줄인 데 이어 이날부터는 30%만 생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광주와 곡성 공장에서 하루 6만5000개 타이어를 생산하는데 이날부터 생산량을 1만8000개로 줄였다. 평소 생산량의 약 27.7% 수준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완성차 납품을 위한 OE(신차용 타이어) 물량 일부를 제외하고는 광주와 곡성 공장 모두 제품 출하가 중단된 상태”라며 “파업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생산량 조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이날부터 제품 출하가 일부 재개됐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 8000톤의 철강제품을 출하하지 못했던 현대제철 포항공장과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제품 출하를 시작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파업 이후 7일 처음으로 제품을 출하하기 시작했지만 완전한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부분적으로 출하가 진행되고 있으나 파업 이전 수준을 회복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유진의 기자 jinny0536@
이민재 기자 2mj@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2주째 이어지며 산업계 피해액이 3조5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석유화학 업계는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놓였고, 타이어 업계는 추가 감산에 들어갔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주요 업종에서의 출하 차질 규모는 3조5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피해 규모가 누적되며 6월 파업 당시 피해액인 2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석유화학업계는 누적된 출하 차질로 적재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다수 업체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감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석유화학업계는 공장 가동이 중

가스공 “LNG냉열 활용해 신사업 창출”

한국가스공사가 LNG냉열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에 따라 가스공사는 LNG냉열을 활용해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발맞추고 있다. 가스공사는 LNG냉열 활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평택 오성산업단지에 위치한 한국초저온의 LNG냉열을 활용하는 냉동냉장 물류센터는 우리나라 LNG 냉열 사업에 본격적으로 첫발을 내디딘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가스공사의 평택 LNG터미널에서 LNG를 공급받아 냉동냉장 창고를 운영하며 초저온 LNG냉열을 활용하여 급속냉동, 저온보관으로 식품의 신선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 가스공사는 2021년 9월 EMP벨스타, 한국초저온,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4개사와 한국초저온인천 법인을 설립해 인천

신항 배후단지를 중심으로 신선식품 및 냉동식품, 바이오 의약품까지 보관할 수 있는 국내 최초 100% LNG 냉열 활용 냉장·냉동 물류창고 구축 및 운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평택 오성산업단지의 LNG 냉열 활용 냉장·냉동 물류사업은 LNG 기지와의 원거리로 인해 코로나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을 보관하는 초저온 창고 중심으로 일부만 LNG냉열을 사용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들어서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냉장·냉동 물류창고는 섭씨 영하 162도의 LNG 냉열을 활용해 SF급(섭씨 영하 60도 이하)·F급(영하 25도 이하)·C급(0~10도 이하) 창고에서 신선화물을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급냉실과 보관·가공·유통 원 스톱 콜드체인을 갖춰 프리미엄 식자재 보관 및 신선배송 유통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인천항의 물동량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굽히느냐 마느냐”... 빅테크, 각국 규제당국과 줄다리기

미국 빅테크 기업과 규제 당국의 마찰이 연말에도 계속되고 있다. 기업들은 당국에 굽히거나 맞서는 등 줄다리를 하면서 각자 살길을 찾고 있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이 유럽연합(EU)과 반독점 혐의 조사를 종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20일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EU는 아마존이 '바이박스'를 통해 소매업체들에 불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바이박스는 할인 제품들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같은 제품이라도 아마존이 특정 업체를 대표 판매자로 선정해 소비자에게 소개할 수 있어 그간 문제로 지적됐다. 아마존이 자사에 입점한 업체들에만 기회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아마존은 협의가 인정될 시 전 세계 매

아마존, EU 반독점 조사종결 합의
메타, 美 언론사 구독료 강제법에
“페이스북 뉴스콘텐츠 퇴출 검토”
트위터, EU 정책 개선 경고 수용
애플은 개인정보 집단소송 골머리

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내야 할 위기에 놓였지만, 바이박스 내에서 다른 경쟁 소매업체들의 제품도 동등하게 대우하기로 EU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는 미국 당국과 맞서고 있다. 메타는 언론사에 구독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저널리즘 경쟁과 보호에 관한 법률(JCPA)'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 페이스북에서 뉴스 콘텐츠를 퇴출

아마존	EU 반독점 조사에 “입점 업체 특혜 제공 않겠다” 합의
메타	언론사 구독료 지급 관련 “뉴스 콘텐츠 제공 않겠다” 엄포
트위터	EU “투명한 이용자 정책, 가짜뉴스 관리 등 평가할 것” 경고
애플	“이용자 데이터 무단 수집” 집단소송, “스토킹 피해” 피소

※ 출처: AP통신, 뉴욕타임스(NYT)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냈다.

메타는 성명에서 “우리가 언론사에 제공하는 가치를 무시하는 정부에 복종하기보다는 우리 플랫폼에서 뉴스를 내보내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지난해에도 언론사에 구독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호주 의회가 통과시키자 일정 기간 뉴스 제공을 중단한 적 있다.

트위터는 EU로부터 정책 개선 경고를 받고 내년 규제기관의 검사를 받기로 했다. 지난해 티에리 브롱트 EU 내부시장

집행위원은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화상통화를 한 뒤 공동성명을 내고 “트위터는 EU 콘텐츠 서비스법(DSA)을 준수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트위터는 투명한 이용자 정책을 구현하고 콘텐츠 조정을 강화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며 “또 가짜 뉴스를 관리하고 표적 광고를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것엔 기술과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며 “모든 부문에서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당국은 트위터의 준비 상태를 평가하러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머스크 CEO는 브롱트 위원과 통화에서 내년 초 법안 준수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에 참여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롱트 위원은 “내년 초 트위터 본사에서 수행될 테스트는 트위터가 기한에 맞춰 감사를 준비하는데 충분한 기회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개인정보 문제와 관련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최근 개인정보 수집 문제로 집단소송을 당한 데 이어 이날 두 명의 여성 이용자로부터 추가 피소됐다. 이들은 애플 분실물 추적장치인 ‘에어태그’가 자신들이 당한 스토킹 범죄에 악용됐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디지털 개인정보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에어태그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제기한 만큼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고대명 기자 kodae0@



애리조나 공장 찾은 바이든·팀 쿡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대만 TSMC 반도체 공장 장비반입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이 돌아왔다”며 “우리가 더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동맹국과 파트너국들도 미국과 함께한다”고 기뻐했다. 작은 사진은 같은 행사에 참석한 팀 쿡(왼쪽)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TSMC 이사회 멤버인 피터 본필드 경과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서 웃음을 짓고 있다. 쿡 CEO는 “애플이 앞으로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를 쓸 것”이라고 말했다. TSMC는 총 400억 달러(약 52조 원)를 투자해 애리조나주에 2개의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피닉스(미국)/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 ‘재선 도전 공식선언’ 임박 트럼프의 가족회사는 유죄 판결

2024년 美 대선 향방은

바이든 여사, 만찬서 대권도전 언급
트럼프그룹, 세금사기 등 17건 유죄

미국 중간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정계 안팎의 관심은 2024년 대선에 쏠리고 있다. 하지만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가족회사가 세금 사기 유죄 판결을 받아 타격이 불가피해졌고, ‘현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공식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그룹은 이날 뉴욕시 맨해튼에 있는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배심원들로부터 세금 사기, 사업문서 위조 등 총 17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그룹은 지난 15년간 일부 경영진들에 아파트 임대료,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 고액의 자녀 사립학교 학비 등을 지급하며 세무 당국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검찰은 트럼프그룹의 전직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앨런 와이셀버그와 트럼프 전 대통령, 그의 자녀 3명이 회사의 자산 가치를 조작하는 등 혐의에 상당 부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와이셀버그의 관련 증언도 확보해둔 상

태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각종 보너스 혜택을 승인했고, 손주들의 사립학교 일부를 지급하는 것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내년 1월 13일 열리는 심의에서 트럼프그룹은 최대 160만 달러(약 21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회사 측은 항소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기소대상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도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WSJ는 “트럼프그룹에 대한 유죄 판결과 그에 따른 처벌은 공화당원들을 더 피로하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공식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공공연하게 연임 도전 의지를 보여왔지만, 공식 선언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지난해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 “나와 남편은 대선 도전에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선전을 이끌며 재선 도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이르러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 재선 도전 여부를 공식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제로 코로나’ 벗어나는 中... ‘백지시위’에 특단 조치

경증 환자 자택 자가격리 허용
상시 PCR 검사는 사실상 폐지
지난달 완화책보다 변화폭 커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완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면서 경제 재개방에 한 걸음 다가갔다. 중국 국무원 산하 코로나19 공동 예방 통제기구가 7일 자택 자가격리 허용,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제시 규정 완화 등을 포함한 새로운 ‘방역 최적화 조치’를 발표했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국무원은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방역 완화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달 11일 중국이 기존 방역 규정을 완화하는 20개 지침을 발표했지만, ‘백지 시위’가 확산

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퇴진 요구로도 이어졌다. 이에 중국이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SCMP는 평가했다. 사실상 ‘제로 코로나’ 출구전략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방역 지침에는 10가지 조치가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택 자가격리 허용과 PCR 검사 규정 완화다. 중국은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를 정부 시설에서 격리토록 했으나, 이제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의 경우 7일간 집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베이징과 광저우 등 일부 도시는 이미 이를 허용했으나, 전국적인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밀접 접촉자도 5일간 집에서 격리하게 된다.

또 상시적인 PCR 전수 검사를 사실상 폐지한다. PCR 검사는 고위험지역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빈도도 줄이면서 신속항원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요양원, 학교 등 특정 장소를 제외하고는 PCR 검사 음성 결과지를 요구하지 않

기로 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요구하던 PCR 음성 결과도 폐지된다.

이외에도 당국은 방역 항의 시위의 불씨가 됐던 우루무치 화재 사고를 의식한 듯 주거단지 전면 봉쇄를 금지했다. 이어 과학적인 위험지역 분류, 5일간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고위험 지역 봉쇄 적시 해제 등을 약속했다. 약국이나 식료품점 등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영역 활동을 보장하고 노인 백신 접종을 장려하는 방안도 담겼다.

중국은 3년여간의 고강도 봉쇄로 이미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는 데다 시위 확산으로 위기가 가중됐다. 이날 중국의 세관 직원 해관 총서가 발표한 11월 무역지표도 부진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7% 감소한 2960억 달러(약 391조 4600억 원)로 2020년 2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수입 역시 1년 전보다 10.6% 급감한 2262억 달러를 기록했다. 정영민 기자 oin@

“애플카, 완전자율주행 포기·출시 1년 연기”

애플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자율주행차 프로젝트가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프로젝트 타이탄’으로 불리는 애플카의 자율주행 관련 기능을 축소하고 출시 일정도 2026년으로 당초 목표보다 1년 연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카는 당초 계획과 달리 차에 핸들과 페달이 유지되고 고속도로에서만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이 대폭 수정됐다. 즉 고속도로에서만 운전자가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등 운전 외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도심이나 약

천후 같은 상황에서는 수동 운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알람을 표시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애플은 해당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차를 북미 지역에서 먼저 출시한 다음 이후 개선 작업을 거쳐 다른 지역에서도 판매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이번 계획 전면 수정은 애플이 자동차라는 새로운 제품군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기술적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수년간 비밀스럽게 진행되던 타이탄 프로젝트는 애플에 새 먹거리 사업이지만, 동시에 그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창원공장 생산차질”... 한국GM, 전환근무 설득 인간힘

부평2공장 인력 재배치 난항

지난달 26일 가동 중단된 한국지엠 부평2공장의 인력 전환 배치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한국지엠 부평2공장 소속 근무자 1200명 중 약 250여 명이 창원공장 재배치를 지원했다. 한국지엠 노사가 1200명 중 700명을 창원공장으로, 500명을 부평1공장으로 전환 배치하기로 합의했으나 여전히 목표 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부평2공장은 그동안 말리부, 트랙스 등을 생산해왔으나 해당 차종들이 단종 절차를 밟으며 올해 지난달 문을 닫게 됐다.

창원공장 장거리 이주 부담에 재배치 목표인원 반도 못채워

使 “부평공장 복귀 전제 파견” 勞 “고용유지 위한 선택” 호소

반대로 창원공장은 내년 상반기 차세대 신형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생산을 앞두고 있어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이에 노사는 부평2공장 인원의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일부 인원의 창원공장 재배치에 합의했다.

그러나 3차에 걸친 창원공장 전환 모집

에도 지원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대부분 직원이 전환 배치로 인해 장거리 이주를 해야 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8년 군산공장 폐쇄로 부평공장 인근에 새로 자리 잡은 직원들은 또다시 장거리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 큰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부평공장 장기 근속자, 젊은 저년차 직원 등 대부분 인력이 창원공장으로의 전환 배치를 꺼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필요 인력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내년 창원공장의 신차 생산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노조 역시 전환 배치의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조합원

을 설득하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전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창원공장 파견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창원공장에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에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평공장에서 정년퇴직하는 인원이 내년, 내후년만 해도 800명이 넘는다”며 “향후 희망 인원들은 정년퇴직 인력을 대체해 부평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계획으로 조합원을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사측 역시 전환 배치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한국지엠은 지난 5일 인력 재배치 조건에 부평공장 복귀를 전제로 한 ‘파견’ 형식

을 추가했다. 창원공장 파견을 지원할 경우 근무 기간은 최대 2년으로, 근무지·주거지를 아예 옮겨야 하는 ‘전보’보다 부담이 적다.

전환 배치되는 직원에 대한 지원책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전보 기준, 일시금 2000만 원과 임대아파트, 이사 비용, 가족사 등을 지원한다. 다만 파견 직원의 일시금은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노사가 전환 배치에 합의한 만큼 원활한 전환 배치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전환 배치되는 직원의 고충을 덜고, 창원공장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재 기자 2mj@

삼성중 부회장에 최성안... 물산 사장 정해린·강병일

정기 사장단 인사

‘뉴삼성’ 건설·조선 경쟁력 복원 엔지니어링은 남궁홍 사장 승진

이재용의 ‘뉴삼성’ 첫 부회장이 건설·조선 부문에서 나왔다. 삼성중공업은 7일 최성안 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장을 삼성중공업 대표이사(Co-CEO) 부회장으로 승진 내정하는 2023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 삼성중공업은 부회장급 대표이사가 이끄는 것은 2009년 김경환 당시 부회장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체제 이후 첫 부회장 인사라는 점에서 삼성이 건설·조선 부문을 ‘뉴삼성’의 미래 핵심 사업으로 보고 경쟁력 복원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인사로 삼성중공업은 최 부회장과 기존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된다. 특히 그룹의 건설 분야를 대표해 9월 이재용 회장과 멕시코·파나마 등 중남미 지역 출장에 동행할 만큼 신임을 두텁게 받는 것으로 평가받는



최성안 부회장 정해린 사장 강병일 사장 남궁홍 사장

다. 이 회장은 8월 삼성엔지니어링 글로벌 엔지니어링센터(GEC)를 방문해 최 당시 삼성엔지니어링 사장으로부터 삼성의 EPC(설계·시공·조달 등 대형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제반 산업) 사업과 해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등을 보고받고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회장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으로 낙점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현장 역시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등 그룹의 건설 사업 역량이 집중된 곳이다.

삼성물산 역시 2023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삼성물산은 정해린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이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대표이사 사장 겸 삼성헬

스토리 대표이사로 승진 내정됐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삼성전자 본사 지원팀과 감사팀, 무선사업부, 구주총괄을 거친 경영관리 전문가다. 강병일 삼성물산 건설부문 경영지원실장(부사장)은 EPC(설계·조달·공사) 경쟁력 강화 TF장 사장으로 승진했다. 강 사장은 삼성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 환경사업지원팀, 경영지원팀을 비롯해 삼성물산 경영기획실을 거쳤다.

한편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번 인사를 통해 공석이 된 대표이사 사장 자리에 남궁홍 플랜트사업본부장(부사장)을 승진 내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조만간 부사장 이하 정기 임원 인사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강문정 기자 kangmj@



제네시스 G90 롱휠베이스 모습.

사진제공 제네시스

제네시스 G90 ‘조용한 돌풍’

9개월간 누적 2만대 판매 EQ900 연간 기록 눈앞에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최고급 모델 G90(지 나인티)이 출시 1년을 맞은 가운데 조용한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국산 최고급차’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시장에 진출한 이후 꾸준히 월평균 2200대 판매를 유지하며 선전 중이다.

7일 제네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사전계약을 시작으로 올 2월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 G90이 10월 누적 판매 1만9682대를 기록했다. 9개월 사이 월평균 2200대 수준이다. 올해 누적 기준 2만3000대 판매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2016년 2세대 에쿠스 후속으로 등장한 EQ900의 연간 기록인 2만3275대 이후 최대치다.

중요한 점은 시장 반응이 당시와 사뭇 다르다는 점. 전체 판매기록은 유사하지만, 인기의 지속도가 다르다.

2016년 EQ900은 출시 후 6개월 사

이 큰 인기를 누리며 월평균 3000대씩 팔려나갔다. 그러나 이후 7개월째부터 판매가 1000대 안팎으로 떨어졌다.

반면 G90 인기는 오히려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2~3월 판매에 각각 1073대와 1897대에 그쳤던 반면, 3월부터 꾸준히 2500대 안팎이 팔리는 중이다. 1억6500만 원에서 시작하는 차 가격을 고려하면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전체 고급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올해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0월까지 1만9682대의 G90이 팔리는 사이, 수입차 시장에서 동급 경쟁차(1억5000만 원 초과 모델)는 2만124대가 팔렸다. 남은 2개월 판매까지 종합하면 올해는 G90이 경쟁수입차 판매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1억5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는 경쟁차 출시 여부가 시장 점유율을 크게 좌우한다”며 “G90의 경우 수입차와 견줘도 상품성이 충분히 산업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美·英 “LG 올레드 에보, 올해의 TV”

LG전자 ‘올레드 에보’(Evo)가 해외 유력 매체들이 선정한 ‘올해 최고 TV’에 올랐다. 7일 LG전자에 따르면 테크레이더, 리뷰닷컴 등 영국과 미국 주요 매체들은 올레드 에보 C2 시리즈를 올해의 TV로 꼽으면서 “기능, 화질 등에서 다른 TV가 이길 수 없다”, “영화, TV 시청, 게임을 즐기는데 환상적”이라고 호평했다. 사진은 미국 전시장에서 고객이 ‘LG 올레드 에보’를 살펴보는 모습.

LG전자 ‘올레드 에보’(Evo)가 해외 유력 매체들이 선정한 ‘올해 최고 TV’에 올랐다. 7일 LG전자에 따르면 테크레이더, 리뷰닷컴 등 영국과 미국 주요 매체들은 올레드 에보 C2 시리즈를 올해의 TV로 꼽으면서 “기능, 화질 등에서 다른 TV가 이길 수 없다”, “영화, TV 시청, 게임을 즐기는데 환상적”이라고 호평했다. 사진은 미국 전시장에서 고객이 ‘LG 올레드 에보’를 살펴보는 모습.

사진제공 LG전자

LG이노텍, 자율주행용 고성능 렌즈 2종

플라스틱 적용해 가격경쟁력 높여

LG이노텍이 글로벌 자율주행용 카메라 모듈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낸다.

LG이노텍은 플라스틱 렌즈를 적용해 크기는 줄이고 가격 경쟁력을 높인 ‘고성능 자율주행용 하이브리드 렌즈’ 2종을 개

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LG이노텍이 개발한 고성능 하이브리드 렌즈는 DMS(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용과 ADAS(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용 두 가지다. 렌즈 내부에 얇은 플라스틱과 유리를 교차 적용해 성능을 더 높인 것이 특징이다.

기존 자율주행용 렌즈는 유리로만 제작됐었다. ADAS에 플라스틱을 적용해 고성능을 구현한 것은 세계 최초다.

LG이노텍의 고성능 하이브리드 렌즈는 완전 유리 제품보다 20~30%가량 두께는 줄이되 성능은 높여 온도도 관계없이 일정한 성능을 유지하며 물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 가격 경쟁력도 높였다. 가격이 저렴한 플라스틱을 채용했기 때문이라고 LG이노텍은 설명했다. 강태우 기자 burning@

기아 EV6, 美 IIHS 충돌평가서 ‘최고등급’

6개 항목 모두 ‘최고’... “안전성 입증”

기아 EV6가 최고의 안전등급을 획득하며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기아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EV6가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를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EV6는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바탕으로 개발한 순수 전기차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신차 안전 평가에서 최고 안전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IIHS는 1959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매년 미국 시장에 출시된 차량의 충돌 안전 성능 및 충돌 예방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발표한다.

EV6는 6개 충돌 안전 항목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전방 충돌방지 시스템 평가에서도 시속 40Km 이내 차대차 충돌은 물론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감지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고 평가받으며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함(superior)을 획득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남궁훈 “시스템 이중화·인프라 개선… 먹통 재발 없다”

개발자 콘퍼런스서 각오 다져

남궁훈(사진)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 재발방지대책 공동 소위원장이 “지금이라도 우리는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며 카카오 장애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또 카카오 서비스 장애 재발방지책 일환으로 인프라 전담 조직을 신설해 서비스 안정성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도 밝혔다.

남궁 소위원장은 7일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 데브 2022(if kakao dev 2022)’에서 ‘Our Social Mission’ 키노트를 통해 카카오의 사회적 소명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각오를 피력했다.

남궁 소위원장은 “우리의 ‘부족한 이중화’는 이중화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결국 장애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남궁 소위원장은 카카오 ESG 최우선 과

재차 사과하고 ‘안정화’ 강조 이중화 미흡 등 장애 원인 꼽아 인프라 전담팀, 상위 조직으로 “사회적 소명·재발 방지 최선”

제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인프라 개선을 위해 과거 원인 분석, 현재 재발방지책, 미래 투자 등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실천과제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고우찬 재발방지 공동 소위원장을 필두로 인프라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 조직은 기존 개발 조직에서 분리돼 별도의 상위 조직으로 존재하게 된다.



남궁 소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통해 카카오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있을 예정이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인프라 조직의 재구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프라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서비스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전문가 고우찬님을 영입했다”며 “카카오 내에 IT 엔지니어링 전문가들로 전담조직을 만들어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래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앞으로는 카카오 서비스의 안정화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이혁영 원인조

사 소위원장(그랩 CEO)은 데이터센터와 운영 관리 도구들의 이중화 미흡, 가용 자원 부족 등을 카카오 서비스 장애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 소위원장은 재해 초기의 컨트롤 타워 부재도 지적했다. 그는 “전체적인 조율과 협업을 지원하는 전사 조직이 사전에 세팅돼 있지 않았고, 서비스별로 개발자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고 짚었다.

이재영 재발방지대책소위원회 부위원장은 “데이터센터 이중화, 데이터와 서비스 이중화, 플랫폼과 운영 도구 이중화 등 인프라 하드웨어 설비부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시스템 전체의 철저한 이중화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시스템 다중화, 데이터 다중 복제 구조 구성, 운영관리도구 삼중화 등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공유했다.

고우찬 재발방지대책 공동 소위원장은 자체 데이터센터 방재 대책 및 향후 5년간의 IT 엔지니어링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총 4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공 중인 안산 데이터센터의 운영 안정성, IT 엔지니어링 전담 조직 및 인재 확보, 각종 자연 재해와 인위적 사건 사고로 사업을 중단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 및 데이터센터 DR (Disaster Recovery) 체계 구축 등 계획을 설명했다.

카카오는 이날 키노트 연설을 시작으로 9일까지 카카오 공동체 소속 개발자 120여 명이 연사로 나서 1015 데이터센터 화재 회고 등을 포함한 12개 트랙, 총 106개 발표 세션을 진행한다. 기술 외, 접근성이나 기술윤리 등 디지털 책임을 높이기 위한 카카오의 실천적 활동을 소개한 콘텐츠도 공개된다. 정수천 기자 int1000@

22곳 기업·기관과 ‘디지털 원팀’ 출범 KT “사회 곳곳 디지털 부작용 없앨 것”

교육·기술·연구 피해지원 등 3개 분과로 나눠 협의체 구성

“디지털 부작용에 대한 피해가 많은데, 디지코를 표명하는 KT로서 부작용 해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KT는 7일 서울 송파구 엠베서더 서울에서 ‘디지털 시민 One-Team(원팀)’ 출범식을 개최하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원팀 출범식에는 KT를 비롯해 구글 코리아, 인텔 코리아, BC카드, 야놀자 등의 디지털 기업 관계자와 서울시 교육청, 학계, 금융계, 법률계 등 22개 기업·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KT는 ‘디지털 시민’에 대해 ‘올바른 마음과 행동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더 나은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사회구성원’이라고 정의했다. 22개 기업과 전문기관들은 디지털 안전·디지털 공존·디지털 책임을 기치로 협력해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디지털 시민 원팀 소속 기관들은 교육과 기술·연구 피해지원 등 3개 분과로 나눠 협의체를 구성했다.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각자가 보유한 서비스와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한 실행과제를 찾는다.

우선 교육 분과에서는 이화여대와 서울교대, 서울시경기도 교육청이 협력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디지털 활용 교육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AI스피커와 챗봇 등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커리큘럼도 마련한다.

기술·연구 분과에서는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부작용을 해소할 기술을 고도화해 확산시키는데 협력한다. 특히 금융사를 비롯한 디지털 기업들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징후를 조기 탐지하는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낸다. 취약계층의 법률 상담과 소송,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집중 심리치료 등의 전방위적 사후 대처를 돕기 위해 로펌과 의료계가 참여하는 피해지원 분과도 운영된다.

출범식을 시작으로 디지털 시민 원팀은 KT를 중심으로 하는 사무국을 두고 주요 경영진을 포함한 정기 협의체를 운영한다.

구현모(사진) KT 대표는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실시간 방송·OTT 시청 한번에”... LG U+, 크롬캐스트 출시

4K 고화질·돌비 음향 지원 집 안팎 어디든 콘텐츠 이용

LG유플러스는 실시간 방송부터 OTT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결형 셋톱박스 ‘Chromecast with Google TV(U+ 크롬캐스트)’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U+크롬캐스트는 4K 화질을 지원하는 최신 기기로 한국어를 지원하는 국내 정식 발매 제품이다. 복잡한 배선이 없는 심플한 디자인과 다양한 OTT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편의성, 4K Dolby Vision-Atmos 지원 기능을 갖췄다.

U+크롬캐스트는 IPTV 서비스인 U+tv가 제공하는 270여 개의 실시간 채널과 27만 편의 VOD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 TV 뿐만 아니라 모니터나 빔프로젝트에 크롬캐스트를 연결해 집 안팎 어디서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구매한 크롬캐스트 이용 고객이 단순히 OTT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가입 및 개통도 편리하다. U+크롬캐스



LG유플러스 임직원이 U+크롬캐스트와 전용 리모컨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트는 기존 IPTV 셋톱박스와 같이 설치 기사 방문을 통한 개통은 물론, 온라인 신청 후 택배로 기기를 전달받고 TV에 연결하는 등 간편하게 셀프 개통도 가능하다. 기기 이상 및 불량 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LG유플러스는 고객센터를 통해 장애에 즉각 대응하고 AS를 제공하는 프로세스도 마련했다.

U+크롬캐스트의 정식 발매에 맞춰 U+

tv 시청에 최적화된 전용 리모컨도 선보였다. 전용 리모컨은 실시간 TV 시청에 익숙한 고객을 위해 각종 편의 기능과 숫자 키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U+크롬캐스트는 OTT 사용에 익숙한 MZ세대 뿐만 아니라, 모니터·빔프로젝트 등 다양한 개인화 미디어를 활용하고자 하는 다각구 고객들로부터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준 기자 tiatio@

시몬스 “3대 안전 침대로 자녀 건강 챙기세요”

라돈·난연·친환경 인증

시몬스 침대가 성장기 자녀를 위한 침대 선정에 안전과 건강을 필수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다.

7일 침대업계에 따르면 시몬스 침대는 국내 침대 브랜드에서 유일하게 매트리스 3대 안전 인증인 라돈·토론 안전제품 인증,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매트리스,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시몬스 침대는 2019년 12월 한국표준협회로부터 라돈 안전제품 인증을 획득한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인증을 갱신해 왔다. 지난 2018년 대진침대에서 불거진 라돈 사태 이후 대다수의 침대 브랜드가 라돈 인증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주요 업체 중 꾸준히 관련 인증을 갱신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인 라돈 이슈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시몬스 침대가 획득한 한국표준협회 인증은 테스트 과정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돈·토론 안전제품 인증의



경우 외부 라돈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측정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진 챔버에 샘플과 시판 제품을 넣고 측정을 진행한다.

난연 매트리스도 시몬스 침대를 대표하는 차별점이다. 시몬스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체 생산시스템을 통해 생산하는 모든 일반 가정용 포켓스프링과 폼 매트리스에 국제표준 및 국내표준시험방법을 적용한다. 관련 특허도 취득했다. 시몬스 침대에 따르면 난연 매트리스는 화재 시 실내 전체가 폭발적인 화염에 휩싸이는 ‘플래시오버’를 방지한다. 골든타임 확보뿐 아니라 화재 확산도 막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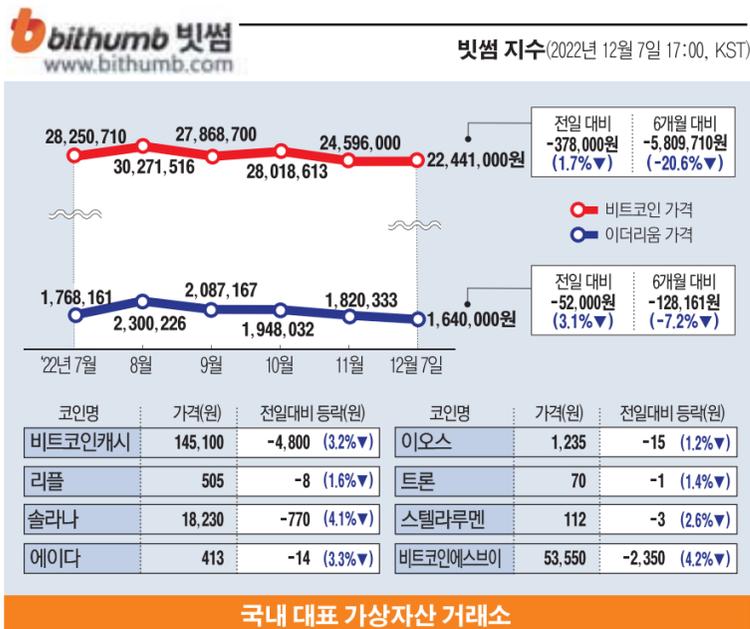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국가 공인 친환경 인증도 획득했다. 모든 매트리스가 국가 공인 친환경 인증을 획득했다. 친환경 소

재인 코코넛오일 성분을 함유한 ‘코코넛 실킴프’, 콩에서 추출한 오일을 포함한 ‘에코젠폼 플러스’, 천연 피마자 열매에서 추출한 오일이 들어간 ‘COB폼’ 등이 대표적이다.

시몬스 침대는 3대 인증과 함께 ‘수면은 건강과 직결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유럽심장학회 2022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8시간 미만 잠을 자는 청소년은 충분한 수면을 취한 도래에 비해 과제중 또는 비만 확률이 높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한 매트리스로 인한 아이의 피부발진 논란이 일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며 “무거운 사망명사로 제품 개발과 생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몬스 침대는 최근 ‘시몬스의 심장’으로 불리는 ‘시몬스 팩토리움’ 투어를 재개했다. 총 7만4500㎡ 부지에 1500억 원을 투자해 만든 자체 생산시스템이다. 간단한 신청만 하면 매트리스 제조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생산 공정과 수면연구 R&D센터 등 주요 핵심 시설을 둘러볼 수 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마저”... 서울 청약 대기단지 ‘흥행 빨간불’

아파트 분양시장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좋은 입지에, 최대 규모를 공급해 주목 받았던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성적표는 기대와 달리 저조하다는 평가다. 이 단지는 향후 분양시장을 판가름하는 바로미터로 꼽혔던 만큼, 분양을 앞둔 서울 단지들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올림픽파크 포레온 1순위 당해 지역(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 청약 접수 결과 전체 3695가구 모집에 1만3647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3.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 타입에서 미달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용면적 29㎡(12.8대 1)를 제외한 모든 타입에서 한 자릿수 경쟁률에 그치면서 성적이 다소 부진했다는 평가다. 전용 39㎡형은 전체 541가구 모집에 560명이 신청하면서 간신히 미달을 면했다.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 기대감이 컸던 전용 59㎡형 역시 평균 4.9대 1의 경쟁률로 저조했다. 앞서 5일 진행했던 특별공급 역시 전용 49㎡ 다자녀 가구 유형, 전용 39㎡ 신혼

‘을 최대 재건축’ 기대 컸지만 1순위 경쟁률 3.69대 1 ‘저조’ 특공 초소형에선 ‘미달’ 사태도 일부 타입 무순위 청약 가능성 ‘강동 자이’ ‘라체르보 푸르지오’ 연내 분양 앞둔 단지들 초긴장

부부 유형 등에서 미달 물량이 생기기도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1순위 당해지역 청약률만 봤을 때는 시장 기대보다 낮은 성적표를 받았다”며 “선호도가 떨어지는 타입에서는 일부 무순위 청약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준 강남급 입지에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격으로 책정돼 앞서 ‘10만 청약살’이 돌 정도로 기대감이 컸다. 서울 내 대표성도 갖춘 단지라 향후 분양시장 분위기를 점쳐볼 수 있다는 평가도 많았다. 그러나 시장 기대보다 저조한 성

장소	단지명	총가구수	분양가구수	전용면적(㎡)
강동구 길동	강동헤리티지자이	1299	219	45~84
마포구 아현동	마포더클래시	1419	53	43~84
성동구 행당동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	958	135	36~116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	752	454	59~84

적에 분양을 코앞에 둔 다른 서울 단지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9일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내고, 곧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단지는 강동구 길동 160번지 일대 신동아 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2층~지상 33층, 8개 동, 전체 1299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중 전용 59㎡형 21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2946만 원대로 정해졌다. 이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

가었던 3829만 원 대비 884만 원 낮은 금액이다. 이에 전용 59㎡형의 경우 6억 5000만~7억7000만 원 선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 가구가 12억 원 이하로 책정되면서 중도금 대출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서울지하철 5호선 길동역과 굽은 다리역이 1km 이상 떨어져 역세권 입지는 아니다.

서울 마포구에서는 ‘마포 더 클래식’가 분양에 나선다. 이 단지는 최근 분양가심사 결과 3.3㎡당 평균 4013만 원으로 책정

됐다. 강남권을 제외하고 3.3㎡당 분양가가 4000만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전용 84㎡형의 경우 13억 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단지는 전체 1419가구 가운데 53가구가 후분양된다. 입주 기간은 내년 2월 5일 까지로, 조합원들은 이미 지난달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후분양인 만큼 입주 기간이 짧아 잔금 마련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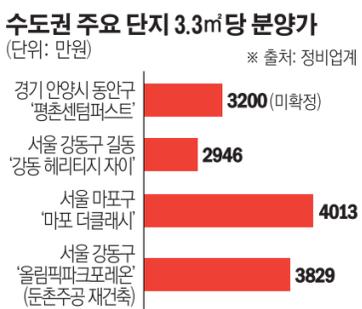
이외에도 성동구 행당동에서는 행당7구역을 재개발한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이 전체 958가구 중 15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도 전체 752가구 중 454가구에 대해 분양에 나선다.

박지민 율령청약연구소 대표는 “둔촌주공이 예상보다 흥행이 저조한 가운데, 연말에도 소규모 가구가 분양이 예정돼 있다”며 “금리나 대출 등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분양가가 인근 단지 시세 대비 높게 책정된 곳에서는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3.3㎡당 분양가〉

안양도 ‘3000만원 시대’ 열리나 청약 한파에도 분양가 고공행진

이달 분양 앞둔 ‘평촌센텀퍼스트’ 3.3㎡당 분양가 3200만원 책정 서울 마포 더 클래시도 4000만원 원자재값·인건비 등 건설원가 올라 분양가 상승세 당분간 이어질 전망



청약 한파에도 신축 아파트 분양가격이 전장부지보다 치솟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도 3.3㎡(평)당 분양가 3000만 원을 훌쩍 넘는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반기 아파트 매수심리가 식으면서 서울 핵심지역에서도 낙제점에 가까운 분양 성적이 속출하고 있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과 원자재값 급등 영향으로 분양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들어서는 ‘평촌 센텀퍼스트’의 평당 평균 예정 분양가는 32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 단지는 안양 덕현지구 재개발 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곳으로, 내년 11월 입주 예정인 후분양 단지다.

평촌 센텀퍼스트 평당 분양가는 아직 미확정이다. 하지만, 조합은 앞서 관리처분 총회 때 결의한 평당 3200만 원 선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통 최종 분양가는 관할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현재 조합은 관할 지자체에 분양가 심사를 신청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기지역 내 분양가 3200만 원 책정은 과전을 제외하면 이례적이다. 앞서 안양시 최고 분양가는 평당 3000만 원 수준이었다. 3월 청약자를 모집한 ‘안양역 푸르지오더샵’ 평균 분양가는 2978만 원으로 약 3000만 원에 근접했다. 평촌 센텀퍼스트가 평당 평균 분양가 3200만 원을 확정지면 약 9개월 만에 평당 200만 원 이상 올려 받는 셈이다.

서울 강남권으로 묶이는 과천시에선 평당 4000만 원 시대가 일찌감치 열렸다. 과천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과천 푸르지오

써밋’은 지난 2019년 평당 평균 분양가 3998만 원이 책정됐다.

경기지역은 과천과 안양을 필두로 평당 평균 분양가 3000만 원대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연내 분양을 앞둔 경기 광명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철산주공8·9단지)는 평당 평균 분양가 2896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형은 옵션비용을 더하면 분양가 9억 원을 훌쩍 넘겨 평당 3000만 원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할 전망이다.

서울은 강남지역을 넘어 강북에서도 평당 4000만 원대 분양가가 고착화할 분위기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들어서는 ‘마포 더 클래시’ (아현2구역)는 최근 마포구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평당 평균 분양가 4013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 단지는 1419가구 규모로 53가구를 후분양 한다. 전용 84㎡형 분양가는 13억 원을 웃돈다.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역시 평당 분양가 3829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렇듯 최근 청약 시장 부진과 집값 내림세에도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건설업계는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원자재값 상승과 임금 상승, 금리 인상 등 금융비용 증가 등을 고려하면 분양가를 올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이 청약 부진으로 이어지는 걸 알지만, 건설 원가가 많이 올라 평균 분양가를 올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분양가격이 내려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준서울’ 광명 3800가구... 2년반 만에 ‘큰 장’

르포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단지가 재건축한다고 할 때부터 눈여겨봤어요. 평지 지형에 4000가구 대단지로 구성돼 마음에 들어요. 규모나 커뮤니티 시설, 입지적인 부분에선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아파트값이 더 떨어진다고 해서 청약을 넣을지 고민입니다.” (예비 청약자 유모 씨)

GS건설은 7일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주공 8·9단지를 재건축하는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의 견본주택을 공개하고 사전 분양탐방을 진행했다. 실제 수요자에게 공개하는 견본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와 함께 16일 공개될 예정이다.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23개 동, 3804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114㎡ 163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별로 △59㎡ 1400가구 △84㎡ 1107가구 △114㎡ 1217가구다. 3~4베이 판상형·타워형 등 다양한 타입을 제공해 수요자의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 가구 남향 위주로 설계해 채광과 일조권을 확보했으며 일부 가구에서는 안양천 조망이 가능하다. 교통편으로는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견본주택 외부 전경. 사진제공 GS건설

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 분양가 3.3㎡당 2896만원 전 평형 중도금 대출 가능 주변시세 내림세 흥행 변수

수도권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서울 시내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재건축 단지로 공급되는 만큼 철산동 일대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는 2020년 6월 공급한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이후 2년 6개월 만의 분양으로 향후 일대 청약시장의 분위기를 진단하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896만 원으로 책정됐다. 분양가는 전용면적별로 △59㎡ 7억 원 △84㎡ 9억 원 중반 △114㎡ 11억 원대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가 중도금 대출 한도를 12억 원으로 확대하면서 전 평형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분양대금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내면 된다. 중도금이자 후불제 혜택을 제공해 계약금과 있으면 중도금 6회차 납부 때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다만 최근 수도권 내림세와 비교하면 분양가가 다소 비싸다는 평가다.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광명시 아파트값은 31주째 내림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광명시 철산동 A공인 관계자는 “입지환경이 비슷한 ‘철산 래미안 자이’ (2009년 11월 준공) 전용 84㎡형은 지난달 17일 7억8000만 원에 계약서를 썼다”며 “지난해 10월만 해도 13억 5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10월 9억6500만 원에 손바뀜된 후 점차 떨어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광명시 철산동 235 일원에 마련됐다. 입주는 2025년 5월 예정이다. 이동욱 기자 toto@

현대건설 “혁신 스타트업 6곳과 상생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공모전 통해 선발 PoC사업 공동 진행...지원금 제공도

현대건설이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개최한 ‘2022 현대건설x서울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공모전에서 혁신 스타트업 6개사를 선발해 상생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공모전은 우수한 혁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현대건설과 스타트업과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 산업 내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개방

형 기술혁신) 프로그램으로,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7일까지 3주간 신청받았다.

이번 공모전의 6개의 모집 분야(△스마트 건설기술 △스마트 안전 △ICT 융복합 △신사업 △현업 Needs 해결 △기타)에 총 126개의 스타트업이 접수했으며 서류 심사, 대면심사, PoC 사업계획 수립 등의 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 분야 2곳, 스마트 안전 분야 1곳, ICT 융복합 분야 1곳, 신사업 분야 1곳 등 총 6개 스타트업이 최종 선발됐다.

선발된 6개 스타트업은 AI 영상분석을 통한 시설물 안전진단 솔루션, 빛을 이용한 유해가스 감지 시스템, 실시간 근로자

위치 인식 솔루션, 탄소 중립을 위한 이산화탄소 자원화 시스템 등 4차산업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들이다.

이들은 연말 안으로 현대건설과 PoC 프로그램 사업 협약 체결 후 내년 1월부터 현대건설의 현업부서와 함께 약 6개월간의 PoC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기술 아이디어 및 현장 적용성이 입증되면 현업 확대 적용, 신기술과 신상품 개발, 사업화 기회 등을 받는다.

현대건설은 PoC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선발된 스타트업들의 육성 및 홍보를 위해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사업화 기회 제공 △사업화 지원금 지원 △사무공간 지원 △투자자 기회 제공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성과 공유 행사도 진행한다. 정용욱 기자 dragon@

“고금리 예금, 막차 잡아라”... 금융권 특판에 ‘쏟린 눈’

금통위원, 금리 최고 3.75% 전망
국내 금리인상 후반부 진입 관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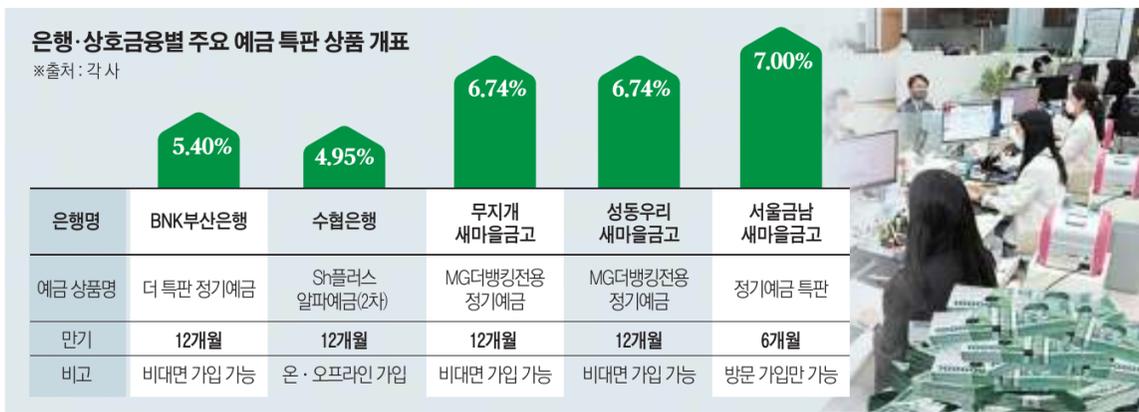
부산銀, 1금융권 최고 年 5.4%
새마을금고, 年 7% 상품 ‘눈길’

국내 금리 인상기조가 후반부에 진입하면서 막바지 고금리 예금 특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신금리가 더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금리 특판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BNK부산은행의 ‘더 특판 정기예금’은 12개월 만기 기준, 금리가 연 5.40%에 달한다. 1금융권 중 가장 높은 금리의 예금상품이다. 기본금리 연 4.95%에 푸시(PUSH) 등의 우대이율 0.10%포인트(p), 첫 거래고객 우대이율 0.35%p를 제공한다.

이달 31일까지 판매되는 이상품은 판매기간에만 가입할 수 있는 특판 전용 정기예금이다. 가입금액은 100만 원 이상으로 제한은 없다. 개인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Sh수협은행은 최대 연 4.95%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Sh플러스알파예금(2차)’을 내놔다. 12개월 만기 기준 기본금리 연 4.55%에 우대금리 0.40%p(마케팅 동의 연 0.05%p+첫 거래 우대 연 0.35%p)를 책정했다.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금액 범위 내에서 1인 다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총 3000억 원 한도로 판매되는 특판 상품이다.

최근 국내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도 은행권의 수신금리가 멈추면서 금리 인상기조가 후반부에 진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현재 3.25%인 국내 기준금리

의 최종 수준이 3.5~3.75%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30일 주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불확실성이 많지만,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금리 인상을 3.5% 안팎에서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 분포도 밝혔다. 금통위원 중 1명은 최종 금리를 현재 금리 수준인 3.25%로 예상했다. 3.50%로 예상한 금통위원은 3명, 3.75%로 예상한 금통위원은 2명이다.

향후 국내 통화정책은 물가 불확실성과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등이 추가 긴축 필요성으로 작용하겠지만, 점차 정책 우선순위가 물가에서 금융안정으로 이동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기준금리가 인상기조 후반부에 도달한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시장금리보다 높게 책정된 상호금융권의 예금 특판에 가입하려는 이들도 늘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에선 연일 조건 없이 고금리를 주는 예금 특판이 등장하고 있다.

무지개새마을금고, 성동우리새마을금

고는 특판 예금인 ‘MG더뱅킹전용 정기예금’ 상품을 내놔다. 6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MG더뱅킹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12개월 만기 기준 기본금리 6.44%에 우대금리 0.3%p를 더해 연 6.74%의 금리를 제공한다.

서울금남새마을금고에서는 연 7.0% 금리의 정기예금 특판 상품을 내놔다. 이 상품은 방문 가입만 가능하며 6개월 만기 상품이다.

다만 상호금융에서 지속해서 공격적으로 고금리 예금 특판을 내놓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금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금리도 인상될 수 있는 만큼 예·적금 특판 등 자금조달 과당경쟁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각 상호금융 중앙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의 수신금리 인상 추세가 한풀 꺾이면서 고금리 특판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다만 새마을금고처럼 2금융권의 경우 예금자보호는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예치금을 납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역할 커진 주금공... 보증잔액 급증 ‘골머리’

주신보 보증 2년새 50% 증가
올해 공급규모 최대치 경신 전망
대위변제·보증사고액 늘어 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불안한 경제 상황속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다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보증잔액 급증 등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주신보 보증잔액은 122조9172억 원을 기록했다. 2020년 83조4367억 원보다 47.5%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102조4616억 원)와 비교해서는 19% 늘었다.

주신보는 일반 서민이 주택을 임차하거나 구입할 때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대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설치된 기금이다. 최근에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주금공에 대한 정책 지원 요청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자금 운용 규모가 커지면서 주택보증 대위변제액과 보증사고액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주택보증 대위변제액과 보증사고액은 2462억 원, 3800억 원 씩으로, 2020년 말 수준을 벌써 넘어선 상황이다. 작년 말 기준 주택보증 대위변제액과 보증사고액은 각각 2286억 원, 3629억 원 씩이다.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충당부채 잔액도 3303억 원 수준으로 늘었다. 주금공 측은 “충당금 설정에 따른 비용은 대출채권 이자수익 등으로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문제는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다. 주신보는 개인보증과 사업자보증으로 나눠 주택 관련 보증을 지원하는데 사업자보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도시시기금·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이나 PF 방식으로 받는 대출,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분

양받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에 대해 지원된다.

주금공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사업자 보증 잔액은 8조9762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말이면 10조 원에 바짝 다가설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사업자 보증 신규 공급액은 매년 증가하면서 △2019년 3조6354억 원 △2020년 4조2291억 원 △2021년 5조1370억 원을 기록했다.

최근 추세라면 지난해 세운 사상 최대 공급 규모를 넘어서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이미 주요 지방 건설사들은 부도 위험 우려에 공격 기관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시장 안정 방안 중 하나로 주금공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에 5조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산유동화증권(ABS) 시장에서 주금공의 유동화증권 지급보증 잔액은 145조9843억 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내년 후반 시장이 안정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선영 기자 moon@

“핀테크 위기극복 지원 강화” 금융위, 혁신펀드 규모 1兆로 확대

2027년까지 5000억 추가 지원
규제 샌드박스 제도 보완 추진도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에 대한 각종 정책 지원에 나선다. 핀테크 혁신펀드의 지원 규모를 총 1조 원으로 확대하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대출·보증 형태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넥스트라운드: 핀테크 스페셜 라운드’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혁신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우선 핀테크 혁신펀드 전체 지원 규모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내년까지 4년간 5000억 원을 지원하고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5000억 원을 추가 결성해 총 1조 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공급해 핀테크 특화 금융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규제혁신도 추진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 새로운 핀테크 분야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규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KDB산업은행이 개최한 2022 KDB 넥스트라운드: 핀테크 스페셜 라운드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스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보완도 약속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최대 4년간 개별 규제 면제 등의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샌드박스의 신청부터 지정까지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핀테크지원센터 내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해 법률·회계 등 핀테크 기업의 경영 전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도 현재 490여 개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720여 개로 확대한다. 이밖에 인공지능(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데이터 결합 후재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 AI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테스트베드도 구축해 AI를 통한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희영 기자 haha@

은행 부실채권비율, 9분기 연속 ‘최저’

9월 기준 전년비 0.13%p 줄어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2020년 3분기 이래 9분기 연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에 따른 지표 착시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해서 유도할 계획이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3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전 분기 말(0.41%)보다 0.03%포인트(p) 하락했다. 작년 동월 말(0.51%) 대비해선 0.13%p 줄었다.

9월 말 부실채권은 9조7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6000억 원 감소했다. 이중 기업여신이 8조 원으로 전체 부실의

82.8%를 차지했고, 가계여신이 1조5000억 원, 신용카드 채권이 1000억 원이었다.

올해 3분기 중 신규 발생한 부실 채권은 2조5000억 원으로, 2분기보다 1000억 원 증가했다.

기업여신 신규 부실이 이 가운데 1조800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000억 원 늘고, 가계여신 신규 부실은 전 분기보다 1000억 원 증가한 6000억 원이었다.

3분기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3조 원으로 같은 기간 2000억 원 늘었다.

신용손실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대손충당금 잔액이 꾸준히 늘면서 9월 말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223.9%로, 전 분기보다 18.3%p 상승했다. 작년 동월

말과 대비하면 58.0%p 개선된 수치다.

은행권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자 선제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면서,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부실채권 비율의 하락이 정부의 소상공인 등 취약층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황 유예 조치로 인한 지표 착시 가능성이 있다며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충격에도 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해 본연의 자금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해서 유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내역을 분기별로 지속해서 점검하고, 연말 결산 시 충당금 적립이 미흡한 은행 등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신한銀 등 8곳 데이터전문기관 예비 지정

금융회사 등 기업 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데이터전문기관 8곳이 새롭게 예비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에서 BC카드·LG CNS·삼성SDS·삼성카드·신한은행·신한카드·쿠론·통계청 등 8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예비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회사 등 기업의

신청을 받아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해 데이터를 결합하는 기관으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한다.

지금까지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4곳이다.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한 데이터는 금융지원정책 수립, 금융서비스 출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유희영 기자 haha@

“내년 증시 상저하고… 기술·혁신株 반등 기회 온다”

리서치센터장에 묻다

미래에셋증권 서철수 센터장

올해 국내 증시는 고강도 글로벌 긴축과 전쟁 리스크,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악재에 바닥을 기었다. 지난해 3300 포인트를 넘어섰던 코스피 지수는 1000포인트 이상 증발하며 올해 최저 2100포인트대로 고꾸라졌다. 한껏 움츠렸던 국내 증시는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위기 속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에게 내년 증시 전망과 투자전략을 물었다.

- 편집자주

내렸으니, 제대로 된 반등 기회도 없이 꾸준히 약세를 이어가 매매하기 어려웠던 해였다”라며 “국내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인터넷, 게임, 메타버스주 등 주요 성장주들도 올해 대부분 더 빠질 정도로 힘들었다”고 언급했다.

서 센터장은 올해 국내 증시에서의 특징으로 환율과 크레딧 이슈를 꼽았다. 그는 “올해 한국시장 움직임을 보면 대갈코마니처럼 환율과 반대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글로벌 유동성, 외인들의 매매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짚었다. 환율은 연초 1100원대에서 1400원 이상으로 수직 상승했고, 3000포인트 위에서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2100포인트대로 고꾸라졌다.

또 서 센터장은 “후반으로 오면서 국내 부동산과 연계된 신용경색 등 크레딧 이슈가 본격적으로 불거졌고, 국내외 유동성 긴축과 시차를 두고 신용경색으로 이어진 양상이 올해의 특징이다”라고 분석했다.

증시안 속에서도 기회를 잡는 종목은 있었다. 서 센터장은 “지정학 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한국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이라는 전통적 취약점이 방산이라는 경쟁력으로 이어졌고, 중국이 장악했던 태양광과 배터리 등은 서방의 견제 속에 국내 기업들이 대체재로 주목받았다”라고 말했다.

내년 증시는 ‘상저하고’ 흐름을 예상했

올 주식·채권 동반급락 속에
원자재·금융·노동비용 증가
내년 상반기 실적부진 불가피
하반기엔 연준 긴축중단 전망
장기적으로 기술주 포플 짜야



사진제공 미래에셋증권

다. 상반기 증시가 바닥을 보이다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중단으로 증시가 반등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 센터장은 “4분기 실적과 내년 1분기, 어쩌면 2분기까지 실적이 나쁠 것으로 보인다”며 “원자재, 금융, 노동 등의 비용은 올라왔는데,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마진이 찌그러지고 있다.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큰 한국은 그 충격이 더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널리스트들이 우리나라의 실적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데,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하반기 들어선 연준의 긴축 중단이 증시 상승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봤다. 서 센터장은 “물가가 떨어지고 경기도 같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금리를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고, 억눌렸던 기술주, 혁신주의 반등 계기가 될 수 있다”라며 “반도체 재고도 내년 상반기면 바닥을 찍으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 시국에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가고 했던 기세로 (지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진 않

는다”며 “누적된 큰 긴축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내년엔 나타나는 국면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내년 증시 상승의 변수로는 러-우 전쟁, 중국 코로나 정책, 국내 크레딧 리스크 등을 꼽았다. 서 센터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재료가 희석되긴 했지만, 유럽 에너지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중국의 방역 완화와 리오프닝도 지켜봐야 한다”며 “국내에서는 부동산 및 크레딧 리스크가 연쇄 충격으로 이어질지 주의해서 봐야 할 변수다”라고 말했다.

‘불확실성의 홍수’ 속 개인투자자는 어떻게 전략을 취해야 할까. 서 센터장은 “주식을 하는 목적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종목 몇 개를 사고팔아 당장 돈을 벌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은퇴 이후 안정을 갖추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며 “자산관리, 자산배분 관점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채권, 배당주, 리츠와 같은 인컴 포트폴리오와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기술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화하느냐가 핵심이다”라고 부연했다.

서 센터장은 “개인투자자가 주식 종목에만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목만 쫓으면 도박처럼 된다”며 “생업에 종사하되 큰 방향만 쫓아가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불황 닥친 증권가… ‘비용절감’ 칼바람 분다

올해 부진한 실적을 받은 여의도 증권가가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인력비와 사업비 등을 줄이며 업황 악화를 견뎌내겠다는 뜻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로 증권업황의 부진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비용감축의 희생양으로 수많은 ‘증권맨’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이냐는 우려도 나온다.

7일 분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증권사들은 인원 감축과 사업 종료 등을 통해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증권가 인원 감축의 신호탄은 케이프투자증권과 다올투자증권이다. 케이프투자증권은 지난달 초 법인부와 리서치사업부를 폐지하고 관련 임직원 일부를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했다.

같은 달 말 다올투자증권도 신입사원을 제외한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 신청을 받았다. 또 경영 관련 직무에서는 상무급 이상 임원 전원이 책임 경영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하이투자증권도 희망퇴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업황 부위기상



게티이미지코리아

자기자본투자(PI)나 투자은행(IB) 쪽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내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며 “증권가에 돌고 있는 매각설까지는 현실화가 어려워도 구조조정 한파는 사실상 틀어박힌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업황 호황 기로 증권사들이 인력 충원에 힘써온 터라 구조조정 충격이 더 클 전망이다. 특히 업계는 급격히 늘어난 계약직들이 구조조정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가 정규직 수는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9년 2분기 3만396명에서 올해 3분기 2만6710명으로 줄었다. 반면 계약직은 7078명에서 1만1472명으로 약 38.3% 증가했다. 지난해 3월 말까지만 해도 9000명대였던 계약직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인원 감축에 대해서 일축하는 분위기다. 현재 이뤄지는 계약직들의 재계약 협상은 노사 간 협의의 통해 계약 연장과 퇴직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상황일 뿐 구조조정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구조조정 대상자였던 한 업계 관계자는 “구조조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면 이 업계에서 계약직들이 계약 해지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며 “지금은 재계약 ‘협상’이 아닌 증권사가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통보’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 동료들끼리 단독방에서 하고 사실을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접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계약직들은 고

고금리·부동산 PF 붕괴 부진에 케이프·다올투자증권 시작으로 사업부 철수·구조조정 잇달아

연봉자들인 경우가 많다 보니 구조조정 표적이 되기 쉬운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력 감축에 이어 증권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한 서비스 종료도 이어가고 있다. 다올투자증권도 웹거래시스템(WTS)과 개인투자자 전용 서비스(뉴지스타·5STAR)를 올해까지만 서비스하기로 했다. 이밖에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등도 각종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다.

증권업황 전망도 밝지는 않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차환 발행 실패 물량을 제2 채안펀드에 매각하거나 자체 보유함에 따라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신용 위험이 상승하고 있으며 정부의 여러 유동성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단기 자금 조달 시장의 경색 완화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보유 투자자산의 손실 인식 여부 역시 4분기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전망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운용업계 보수인하 경쟁 신한운용 다우존스ETF 0.05%로 한투신탁도 11월에 0.06%로 인하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자산운용사들은 앞다투어 보수를 낮추며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자산운용은 전날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의 총보수를 연 0.15%에서 0.0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한국투자신탁운용이 ‘ACE 미국배당S&P ETF’의 총보수를 0.5%에서 0.06%로 낮춘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두 ETF는 모두 ‘다우존스 US 디비던드 100 프라이스 리턴 인덱스(Dow Jones U.S. Dividend 100 Price Return Index)’를 기초지수로 삼는다. 이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는 한투운용의 상품이 유일했는데, 지난달 신한운용이 상품을 출시하면서 총보수를 훨씬 낮은 0.15%로 책정했다. 이에 한투운용이 보수 인하 카드를 꺼내들자 신한운용도 ‘맛볼’을 놓은 것이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이미 시장에 출시된 상황에서 뒤따라 상품을 내놓는 운용사들은 0%에 가까운 보수를 내세워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이달 초 ‘KODEX 미국S&P500(H) ETF’를 상장하면서 총보수를 업계 최저 수준인 0.05%로 책정했다.

출발 20주년을 맞은 ETF 시장이 낱이 몸집을 키우면서 자산운용업계도 다방면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월배당’, ‘채권형’ ETF 등 변화하는 투자 수요에 맞춰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수의 차이가 수익률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운용사는 보수를 낮춰 투자자를 모으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viajeporlune@

사업목적·이름 바꾸고 분할·합병 추진… 상장사는 내년 준비 중

이달 77개사 추종 진행 미래 경쟁력 확보 고심

올해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상장사들이 사업목적이나 상호를 변경하거나 분할·합병에 나서는 등 내년 및 미래 경쟁력 확보에 고심 중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주주총회를 열었거나 열 예정인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총 77곳이다. 추종을 앞둔 일부

상장사는 사업 확장·이전을 논의할 예정이다. 엔에스엔, 웰바이오텍, 다이나믹디자인, 한국테크놀로지 등 17개 상장사는 사업목적 변경을 안건으로 공시했다.

엔에스엔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을 비롯한 사업목적 3개를 추가하고,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 등을 포함해 4개의 불필요한 사업 목적을 삭제할 예정이다. 웰바이오텍은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등 11개 사업 목적을, 다이나믹디자인은 니켈 광물

신산업 진출 관련 조문 추가를 이유로 5개의 사업 목적을 추가한다.

한국테크놀로지는 리튬관련 신사업 다각화를 위해 32개 사업 목적을 더하고 자동차 관련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등 9개 사업 목적을 지운다. 씨앤지하이테크는 환경 관련 신사업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설비사업 등 사업 목적을 4개 더 늘린다. 에스디생명공학은 건강기능식품·배터리사업 등 15개 사업 목적을 추가한다.

세준은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관련 IP투

자, 전자결제 등 10개 사업을 더한다. 세경하이테크는 이차전지 관련 사업 1개를, 엑서지21은 에너지 저감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광학렌즈 사업을 정리한다.

기업 분할 추진도 이뤄진다. 코오롱글로벌은 이달 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 계획서 승인을 의결할 예정이다. 해성산업도 계약 전기 투자부문 분할합병 계약서에 승인한다. 골드엔에스도 영여 직영 학원 사업부문 물적 분할 계획서를 승인받는다.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한 상장사 관계자는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신사업을 필두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민규 기자 pmk8989@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행복과 성장의 플랫폼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순직·공상 소방관 자녀들을 위해

공부방이란 희망을 선물합니다



하나금융그룹과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은
순직·공상 소방관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합니다

공부방 리모델링 지원 사업 수혜가정 1호

행복과 성장의 플랫폼
청소년그루터기재단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모터 스포츠의 유산

무광 컬러·D컷 운전대... 멋 이전에 숨은 기능 있었네



기아 EV6와 스티어링에는 레이싱 DNA가 새겨져 있다. 아래 사진 왼쪽부터 EV6 무광 차체, 정교한 코너 진입을 돕는 스티어링의 D컷 운전대와 EV6 보디 스트라이프, 마지막으로 스티어링 뒤편 중앙의 '리어 디퓨저'.

사진제공 기아

1990년대 말, 세기말을 앞두고 글로벌 주요 완성차 제조사들은 앞다퉈 '고성능'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 무렵, 정교한 엔진 기술을 앞세워 효율이 뛰어난 고출력 엔진도 속속 등장했다. 이전과 같은 배기량을 지녔어도 더 높은 회전수를 견디며 더 큰 출력을 뽐내기도 했다.

이들의 고성능 엔진 기술 뒤에는 굼직한 레이싱 경기를 거치며 얻어낸 노하우가 존재한다. 레이싱 경기를 반복하면서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고성능 양산차를 개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이 각각의 브랜드를 대표하는 스포츠카들이 나오게 됐다.

◇양산차에 스며든 레이싱카 DNA

공도와 서킷에 각각 몸을 반쯤 걸친 고성능 차들이 '스포츠카'라는 명제를 앞세워 속속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

이들은 판매량을 확대해 제조사의 배를 불러주는 차들이 아니다. '고성능'이라는 상징성을 앞세워 브랜드의 다른 모델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른바 '이미지 리더'다.

그렇게 스포츠카에 국한됐던 다양한 고성능 DNA는 시간이 흐를수록 일반 양산 모델로 확산했다. 평범한 고급 세단이 어

차체 경량화를 위한 '무광'

옛 레이싱은 은빛 화살들의 경쟁 페인트 10kg 벗기면 4마력 ↑ 효과 스포츠카 디자인으로 '무광' 굳어져

정교한 조작 'D컷 운전대'

운전대 아래를 'D' 모양으로 잘라 얼마나 돌렸는지 즉각 확인 이점 현대차N·기아 스티어링 등 장착

기능성 '보디 스트라이프'

보닛 한가운데 가로지르는 선 장식 차 앞머리 정교한 코너 진입 도와

설뿐 스포츠카를 단박에 추월하기 시작한 것. 이후 스포츠카의 영역은 다른 모델로 더 확산했다. 고성능 왜건과 고성능 SUV의 시대도 이때부터 본격화했다.

◇무광컬러의 출발은 '실버 애로우'

무광 색채의 시작도 2차 대전 이후 본격화된 레이싱 경기였다. 0.01초가 순위를 뒤바꾸는 레이싱 경기에서 가벼운 차 무게는 적잖은 효과를 냈다. 당시 기술로 경주용 차 무게 10kg을 줄이면 최고출력을 3~4마력 더 끌어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차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고 그 가운데 하나가 페인트를 벗겨내는 일이었다. 페인트를 벗겨 차 무게를 줄이다 보니 차체는 오롯이 철판이 드러났다.

그렇게 레이싱 경기에서는 도색을 벗겨낸, 은색 레이싱카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날아가는 실버 애로우(화살)"라는 별칭도 이때 나왔다.

요즘 우리 주변에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무광컬러' 역시 이를 모티브로 삼았다. '매트(Matt) 피니시'라는 후처리 공정을 거쳐 반짝이는 광을 걷어낸 것. 무광컬러의 시작도 애초 레이싱이었다.

◇코너 공략 위한 D컷 운전대

먼저 우리가 흔히 쓰는 "핸들"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표현이다. 올바른 명칭은 '스티어링 휠' 또는 우리말 '운전대'가 바른 단어다.

D컷 운전대는 동그란 스티어링 휠의 아랫부분을 직선으로 가공한 형태다. 이 모양이 알파벳 D와 닮은 덕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는 레이싱에서 코너를 공략할 때 정교한 조작을 끌어내기 위해 등장했다. 운전대가 얼마만큼 돌아가고 있는지 드라이버가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 국산차에도 이런 D컷 모양의 운전대가 여러 고성능 차에 쓰인다. 현대차 고성능 N버전, 기아 스티어링 등이 대표적이다.

◇기능성에 초점 맞춘 보디 스트라이프

보닛 한가운데 또는 운전석 쪽에 기다란 테이프를 붙이는 차를 종종 볼 수 있다. 국산 양산차 가운데 1997년 현대차가 선보인 '티뷰론 스페셜'이 출고 때부터 이런 모습의 '보디 스트라이프'를 달고 나왔다.

겉보기에 멋져 보이는 디자인이다. 그러나 다분히 기능성도 갖췄다. 애초 레이싱 경기에서 코너마다 차의 앞머리를 정교하

게 진입시키기 위해 이런 모습의 '보디 장식'을 추가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 등장하는 신차들은 기능적 측면보다 디자인적 매력을 위해 이런 장식을 덧댄다.

◇공기와와 처연한 싸움 '리어 디퓨저'

뒤편 중앙에 달린, 지느러미 모양의 장식이다. 이 역시 레이싱카에서 시작한 기능적 디자인이다.

빠르게 달리는 차는 차 앞머리부터 공기를 가른다. 갈라진 공기 가운데 일부는 차 바닥으로, 일부는 보닛을 타고 앞 유리를 거쳐 차 지붕으로 흐른다. 갈라진 이 공기는 차 풍무니에서 다시 만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차 바닥을 빠르게 통과한 공기는 뒤편을 지나면서 상승한다. 차의 뒷부분이 들쭉일 수 있는 것. 결국, 이를 막기 위해 고성능 차들은 차 뒤쪽 트렁크 부분에 '에어 스포일러'를 장착하기도 한다.

리어 디퓨저는 차 바닥을 통과한 공기가 위로 솟구치는 현상을 감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최근 양산차에 달리는 리어 디퓨저는 기능보다 '패션'의 역할이 더 강하다.

junior@

“배터리 불 나면 일단 車 냉각수로”...굿 아이디어!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배터리 화재' 역시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가장 큰 원인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외부 충격이다. 일각에선 충전 중 또는 주차 중 자연발화 사고까지 보고돼 있다.

최우선 과제는 원인을 찾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나아가 본격적인 '열폭주' 전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대안이 속속 나오고 있다.

배터리 화재의 경우 열폭주가 시작되면 소방이 출동해도 좀처럼 진화가 쉽지 않다. 배터리 자체가 자동차 바닥 면에 깔린 탓이다. 소방수(水)가 직접 접촉하기 어려운 구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동식 '저수조'를 만들고 발화 전기차를 물속에 담그는 방법마저 나왔다.

결국 효율적인 초기 진화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고, 이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도

현대모비스 임직원 아이디어 공모 불꽃 감지 댄 배터리팩 내부 분사 유압선 필리에 송수관 연결 제안

쏟아진다.

최근 유럽에서는 개발 때부터 자동차의 각 필리(차체와 지붕을 연결하는 기둥, 앞쪽부터 A, B, C필리로 불린다)를 활용한 아이디어까지 나왔다. 각 필리와 배터리 사이를 '송수관'으로 연결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이 필리에 소방수를 쏟아 넣는 방식이다.

현대모비스 역시 최근 사내 임직원 아이디어 행사인 '엠피스 페스타'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올해에만 700여 건의 다양한 자동차 관련 아이디어가 쏟아진 가운데 최우수 아이

디어로 '냉각수 활용 전기차 BSA(배터리 시스템) 긴급 침수 시스템'이 뽑혔다.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BSA 내부에 냉각수를 분사, 열폭주 전 단계의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기술이다. 여기에는 전기차 모터와 인버터, 배터리 등을 냉각할 때 쓰는 냉각수를 활용한다. 이들 냉각수를 모두 포함하면 18~20 l에 달한다.

배터리 시스템에 작은 불꽃이라도 감지되면 20 l 생수통의 물을 쏟아부어 초기에 화재를 막아내겠다는 아이디어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당장 양산 전기차에 활용하거나 향후 사업목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작다. 임직원이 낸 아이디어 수준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기발한 발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손꼽히는 자동차 전문가 집단(현대모비스)에서 이를 '최고 아이디어'로 선정한



경북소방학교 다목적 훈련장에서 소방관들이 전기차 화재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최우수 아이디어들이 향후 양산화·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연구개발 과정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냉각수를 활용한 배터리 화재 초기 진화가 얼마나 큰 효용성을 지닐지 검증되지

않았다. 누군가는 이를 간과하며 웃어넘길 수도 있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아이디어가 훗날 자동차 산업을 크게 변화시킬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or@

임기만료 임박... 제약·바이오 CEO 누가 연임할까

내년 3월 대표직 임기 만료 5곳
삼바, 존립 사장 연임 무게 실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 2兆 돌파
셀트리온 부회장은 '4연임' 기로
제일약품 '최장수 대표직' 지킬까



존립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기우성 셀트리온 부회장



성석제 제일약품 사장



권세창 한미약품 사장



신영섭 JW중외제약 사장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수장들의 임기 만료가 몇 달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상황을 헤치며 회사 성장을 일궈낸 이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제약바이오기업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미약품, 제일약품, JW중외제약 등의 대표이사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된다. 모두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기업들로 안정과 변화 중 어느 쪽을 택할지 눈길을 끈다.

가장 주목 받는 수장은 존립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다. 삼성그룹은 매년 혁신과 차세대대를 강조해왔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은 예외였다. 김태용 전 사장의 경우

2011년 회사 창립부터 9년간 회사를 이끌었다. 존립 사장은 2020년 배턴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초격차'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결기준 올해 3분기 누적 매출 2조 원을 돌파했고, 별도기준으로도 지난해 연간 실적을 뛰어넘었다. 또 세계 최대 규모인 4공장(24만 리터)의 부분 가동을 시작하면서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의 30%를 차지할 채비도 마쳤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연임이 무게가 실린다.

기우성 셀트리온 부회장은 4연임 기로에 섰다. 그는 2015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아 셀트리온의 '1조 클럽' 가입을 이끌었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 1조7733억 원, 영업이익 5466억 원으로 사상 첫 연매출 2조 원을 달성할 전망이다. 셀트리온그룹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의 3사 합병을 앞둔 점도 연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활한 합병을 위해서 위험부담을 감수한 변화보다는 안정을 꾀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성석제 제일약품 사장은 업계 최장수 대

표이사로 꼽힌다. 2005년 4월 선임된 후 18년간 제일약품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7연임에 성공하면 20년 이상 대표이사직을 맡게 된다. 성 사장은 글로벌 제약기업 품목 도입으로 회사를 비약적으로 키워냈다. 2004년 2242억 원이던 연매출은 2021년 7000억 원을 넘기며 3배 성장했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 5518억 원을 기록, 전년동기 대비 약 10% 늘었다. 다만 상품 위주 외형 성장으로 수익성은 좋지 않았다. 지난해 105억 원 적자,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 85억 원이다. 성 사장은

자사 제네릭을 출시를 통한 이익구조 개선과 뇌졸중 치료제 등 신약개발 추진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우중수 사장과 함께 한미약품을 이끄는 권세창 사장은 한미약품을 연구개발(R&D) 중심 회사로 탈바꿈시켰던 점에서 신임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는 핵심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호중구감소증 신약 '블론티스'가 미국 식품의약품(FDA) 허가를 통과하면서 글로벌 신약을 만들겠다는 한미약품의 숙원을 풀었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포지오티닙'의 FDA 승인이 불발됐지만, 랩스커버리 기술력을 입증해 후속 파이프라인에도 탄력이 붙었다. 실적도 사상 최대치 경신이 예상돼 권 사장에게 힘을 실리는 모양새다.

JW중외제약 신영섭 사장도 연임이 유력한 분위기다. 지난해 처음 연매출 6000억 원을 넘겼고, 올해 3분기 누적 매출 4912억 원을 달성해 작년 기록을 다시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누적 영업이익은 189억 원에서 343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 수익성도 확보했다.

유혜은 기자 euna@

편의점업계, 도시락으로 '런치플레이션' 틈새공략

GS25, 압구정 맛집 도산분식과 '명란마요라이스' 등 RMR 선택
CU, 토끼정 시그니처 6종 출시

편의점 업계가 도시락 상품 경쟁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물가 상승에 '런치플레이션'이 심화하면서 직장인들의 점심 수요는 물론 외식 수요까지 공략하기 위해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GS25는 압구정 분식 맛집으로 유명한 '도산분식'과 클래식한 RMR(레스토랑 간편식) 상품을 선보였다. 도산분식은 분식 메뉴에 이색 식재료를 더한 메뉴로 줄 서는 맛집으로 알려져 있다.

출시 상품은 도산분식 시그니처 메뉴를 살린 '도산분식명란마요라이스(삼각김

밥)'와 '도산분식비빔면세트(김밥&조리면)' 등 2종이다. 삼각김밥은 도산분식 '명란에그라이스' 레시피를 바탕으로 우영제와 함께 비빔 계란밥에 명란 샐러드 토핑이 들어갔다. 해당 상품들은 지난달 30일 출시 후 5일 만에 30만 개 넘게 판매됐다. GS25는 품질로 구매하지 못한 고객이 발생하지 않도록 8일부터 온라인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CU는 일본 외식 브랜드 '토끼정'의 시그니처 메뉴를 도시락, 삼각김밥, 냉장면, 냉장 안주 등 6종의 RMR(레스토랑 간편식)로 내놨다. 이달 중순 명란크림파스타와 함박스테끼, 고구마 크로켓 등도 차례로 선보인다. CU가 RMR 간편식에 힘을 주는 것은 유명 레스토랑과 협업해 선보인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어서다. 올 9월 미쉐린 뷁구르망 대표 맛집들과 선보인 RMR 시리즈는 출시 두 달만에 누적 판매

량 130만 개를 넘겼다.

세븐일레븐은 '순댓국'을 겨울철 시즌 상품으로 출시했다. 순대와 머릿고기에 고추 양념장, 들깨가루, 대파, 청양고추 등의 토핑을 넣었다. 별첨된 진한 사골육수와 물을 함께 붓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완성된다. 세븐일레븐 역시 런치플레이션에 따른 도시락 상품 성장세에 주목했다. 올해 11월까지 세븐일레븐의 도시락 매출은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이마트24는 햅쌀을 사용해 편의점 도시락의 맛과 품질 신뢰를 높였다. 지난달부터 올해 수확한 햅쌀로 밥을 지어 밥맛을 높인 반반고기정장, 송정식당 불고기백반 판매를 시작했다. 이마트24에서 판매하는 모든 도시락, 김밥, 주먹밥은 협력업체들이 농협으로부터 도정한 지 3일 이내 일품 미만을 공급받아 사용한다.

조남호 기자 spdran@



홈플러스 '홈플러스' 먹거리 할인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2주차를 맞아 연말 홈 파티 먹거리와 각종 용품들을 대거 선보인다고 7일 밝혔

다. 8일부터 11일까지 척아이를 비롯한 호주산 소고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14일까지는 우주천동 반딧불 큰 사과, 제주 타이백 밀감 등도 특가에 선보인다.

사진제공 홈플러스

한통 12만원 '청담동 샴푸' 출격 요즘 대세는 '프리미엄 헤어케어'

신세계, 국내 500여개 매장 입점한 이탈리아 '다비네스' 독점판권 인수
LG생진, 美 보인카 지분 56% 인수
비건 브랜드 '알틱포스'로 시장 진입

한통에 10만 원이 넘는 고가 샴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패션·뷰티에 관심이 많은 2030을 중심으로 니치 향수에 이어 최근 럭셔리 헤어케어 제품 인기가 오르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이달 이탈리아 헤어케어 브랜드 다비네스(Davines)의 국내 독점 판권을 인수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사업을 시작한다. 다비네스는 1983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럭셔리 헤어케어 브랜드다. 전 세계 97개국에 진출했고, 국내에서는 500여 개의 헤어살롱과 각종 온·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한 고기능성 전문가용 제품이다. 베스트셀러 제품 '에너지잉 샴푸'는 한 병에 12만 원대(1000ml)로, 일명 '연예인 샴푸', '청담동 샴푸'로 불린다.

신세계인터는 앞서 올 8월 캘러리아 알

구정점 WEST에 초고가 헤어 브랜드 '오리베(ORIBE)'의 첫 단독 팝업 매장을 열고, 배우 이상경을 브랜드 앰버서더로 발탁해 럭셔리 헤어케어사업을 본격화했다. 당초 6개월 동안 팝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소비자 반응이 좋아 현재 정식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오리베는 할리우드 스타들의 스타일리스트 오리베 카탈레스가 2008년 뉴욕에 설립한 럭셔리 헤어케어 전문 브랜드다. 대표 상품 '골드 리스트 샴푸'의 한 병 가격은 20만 원으로 '샴푸계의 사넬'로 통한다. 회사 관계자는 "4년간 매출이 360%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온라인 매출은 1036% 급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 정식 론칭했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하반기 미국 프리미엄 헤어케어 브랜드 알틱포스(Arctic Fox)를 소유한 보인카의 지분 56%를 1억 달러(약 1170억 원)에 인수하며 럭셔리 헤어케어 시장에 뛰어 들었다. 알틱포스는 2014년 미국에서 출시된 비건 컨셉트의 브랜드다. Z세대(20~30대)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미국 아마존에서 한때 전체 헤어컬러 제품군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남주현 기자 jooh@

"프리미엄 이미지 반등"... 하림, 다시 이정재로

'오겜' 이후 몸값 뛰어 심사숙고
'더 미식' 광고모델 재계약 체결
인지도 확대·해외진출 등 고려



오겜 이후 이정재가 세계적인 배우로 거듭나면서 몸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이정재였다. 이유는 더미식 장인라면과 더미식 밥 등이 기대와 달리 부진한 성적을 두고 있어서다.

실제 시장조사기관 닐슨IQ코리아에 따르면 더미식 장인라면은 올해 8월 누적 라면 브랜드 매출액 순위 '톱(Top) 20'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더미식 밥은 올해 3분기 기준 국내 즉석밥 시장 점유율 5% 미만이다. 하림은 제품 인지도를 넓히기 위해서는 톱스타 마케팅 외엔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인지도를 고려한 것이라 분석도 있다. 더미식 장인라면은 수출 전부터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만큼 '이정재 라면'으로 관심을 받았다. 입소문이 퍼지며 더미식 장인라면은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 등 5개국에 진출했다. 하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장인라면 수출액은 지난해 약 2개월간 수출액의 13배에 달한다.

하림 더미식은 이정재와의 재계약을 발판으로 반등을 노린다. 올해 9월 더미식 밥 생산 확대 계획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전북 익산소재 퍼스트키친 밥 공장의 생산라인을 증설했다. 최근엔 한우사태곰탕, 갈비탕 등 더미식 국·탕·찌개 7종을 출시했다. 더미식 라인업의 네 번째 상품이다. 신제품은 재료 본연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 가열 공정 최소화 적용됐다. 또한 하림은 더미식 밥과 유니자장면 등 다른 제품들의 수출도 논의하면서 더미식 제품군의 반등을 이끈다는 전략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하림이 가장간편식 브랜드 '더(The) 미식' 광고모델로 배우 이정재(사진)를 다시 선택했다. 낮은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정재만한 모델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하림산업은 최근 이정재와 '더(The)미식' 모델 재계약을 체결했다. 기간은 1년이다. 이에 대해 하림산업 관계자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정재는 작년부터 더미식 광고모델로 활동했다. 당시 하림은 "프리미엄 이미지를 갖춘 것은 물론 일상 속에서 라면을 즐기는 유틸리티 있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하림은 재계약 여부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징어게임 열

<70만원 바우처·책꾸러미 선물>

서울시, 내년부터 임산부 '교통비·Book돋움' 원스톱 지원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일환 지원포털서 동시신청 가능해져 대상은 6개월 이상 서울 거주자 양육 심리지원 사업도 확대 예정

내년부터 서울에 사는 임산부가 교통비 지원부터 책 꾸러미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2023년 서울시 엄마 북(Book)돋움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기존사업(2022년)	확대사업(2023년)
사업방식	자치구 지원사업	시 직접사업
수혜대상	영유아	임산부
신청방식	주민센터 및 도서관	임산부교통비 포털에서 교통비와 책 꾸러미 동시신청
배포방식	직접 수령 및 일부 택배배송	택배배송
꾸러미구성	그림책 2권	부모책 1권, 그림책 2권, 서울시 육아 정책 정보

들어간다.

이번 북돋움 사업의 골자는 내년부터 서울에 사는 임산부가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과 책 꾸러미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임산부들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교통비 신청 시 북돋움 책 선물 추가 선택을 누르면 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교통비 지원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었고, 책 꾸러미는 자치구마다 해당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해 직접 수령하거나 택배로 받는 형식이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서울 거주가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다. 신청 가능 기간은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받아볼 수 있는 책 꾸러미도 다양해진다. 내년부터 책 꾸러미는 부모 책 1권, 그림책 2권, 서울시 육아 정책 정보로 구성된다. 임산부에게 도움이 되는 영아 육아 정보서, 출산 후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그림책, 서울시 정책 서비

스 등의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 거주 임산부, 영유아 및 양육자 등 해마다 약 4만3000명이 신청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에비부모들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 포털을 통해서 교통비도 받고, 책도 받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한 홈페이지에서 동시 신청을 함으로써 좀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시는 아이 돌봄서비스나 엄마·아빠 힐링 프로그램도 자치구와 협력해 사업도 늘릴 예정이다. 실제로 올해 6월부터 서울시가 엄마·아빠 힐링 프로그램으로 도입한 심리지원 프로젝트 ‘서울시민 마음잡고(Job Go) 사업’은 90%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기도 했다. 김재민 기자 chaebi@



‘월드컵 16강’ 일군 태극전사 귀국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룬 한국 축구대표팀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손흥민(앞쪽 왼쪽 세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첫 재판 남욱 “이득 취한 적 없다” 부인

유동규 “혐의 상당 부분 인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 중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추가 기소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7일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남 변호사 측은 “피고인은 2013년 보유 주식을 정재장 씨에게 양도해 배당 이득을 취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공판에서 “위례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선거 자금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다”며 “이재명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이 최소 4억 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정 회계사 측도 “구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의 처벌 규정만 있고, 공직자로부터 비밀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한 상대방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며 “민간 사업자를 부패방지법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없이 법정에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상당 부분 인정한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변



남욱 변호사가 7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사 선임 후 다시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이 업무상 비밀을 민간 사업자인 남 변호사 등에게 제공해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준 거로 판단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등이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모의했다는 취지다.

이들은 사공사로 호반건설을 선정한 뒤 2017년 3월까지 총 418억 원 상당의 시행이 익이 나자 주주협약에 따라 호반건설 169억 원, 위례자산관리 42억3000만 원가량의 배당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는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장 씨,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였던 주 모 씨도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송석주 기자 ssp@

‘업비트 자전거래 혐의’ 송치형, 2심도 무죄

(두나무 의장)

재판부 “주요 증거 위법하게 수집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없다” 기각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내에서 거래량을 부풀려 자전거래 혐의를 받은 송치형 두나무 의장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거래량을 부풀리는 데 활용된 허위 계정의 거래 내역 등 주요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7일 오후 송 의장을 비롯한 두나무 임직원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항소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거래내역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절차적 위법이 영장주의 내지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공소사실 증명 여부에 대해 판단할 때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송 의장 등 피고인들은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보 계정을 생성해 연달아 매수·매도 주문이 일어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실물 입고 없



7일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무죄 선고 후 재판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이 가상자산을 제출해 일반 회원이 주문 제출한 것처럼 거래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코인을 매도했고, 이에 속은 회원들이 허위 계정으로부터 코인을 매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자전거래가 일어난 코인은 비트코인을 포함해 총 35개로, 거래 규모는 4조2000억 원 상당이다. 매매대금은 1491억 원이며 이렇게 얻은 거래 수수료는 7400여만 원에 이른다.

문제는 거래 내역의 수집 과정이었다. 재판부는 자전거래에 활용된 허위

계정인 ‘ID 8번’ 계정의 거래 내역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거래 내역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2018년 5월 10일 역삼동 미림타워 내 두나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등을 진행하며 거래내역이 기록된 데이터베이스(DB) 장소가 해외 아마존 클라우드인 것을 알게 됐다. 이에 검찰은 임직원들에게 컴퓨터에서 아마존 클라우드에 접속하게 해 8번 계정의 거래내역을 컴퓨터에 내려받는 작업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사 스스로 “영장청구서에 압수수색 장소 제목으로 두나무주식회사 사무실 및 전산 서버라고 기재했다. 그럼에도 압수수색 영장에 아마존클라우드에 저장된 업비트 데이터베이스에서 8번 거래 내역을 압수했다”면서 “이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죄 선고 후 송치형 의장은 이석우 대표와 함께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갔다. 두나무 측은 “당사 임직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유리 기자 inglass@

대법 “피해자 진술만 있는 ‘떡살잡이’ 무죄”

업무방해는 인정 ‘벌금 100만원’

피해자의 주장을 제외하고 폐쇄회로(CC) TV 등 증거가 없는 경우 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약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의 업무방해 혐의는 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전원주택 단지 관리인 A 씨는 2017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주택 단지에 입주한 회사와 연결된 지하수 배관의 수도 계량기 잠금 밸브와 밸브 손잡이를 떼어내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달 21일 밸브 손잡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입수자 직원 B 씨의 떡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자신을 촬영하는

B 씨에게 화가 나 떡살을 잡았다고 봤다.

A 씨 측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전기요금을 연체해 벌인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1심은 A 씨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하고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사전 예고 조치를 했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하수 사용료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B 씨의 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B 씨의 진술 외에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장에 CCTV가 있었는데, A 씨와 A 씨 딸들이 왕래하는 모습 정도만 포착했을 뿐으로 밝혀졌다.

검사만 1심 판결에 불복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2심은 무죄판단과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폭행 혐의에 대해 심리해도 원심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지역인재 확대' 의대정시, 가산점 유불리 체크를

입시특특

서울대, 학교장 추천 지균 신설 환산점수·전형방법 '당락 변수'

올해 의대 정시에서는 지역균형전형 선발인원이 확대돼 수험생들이 관련 지원 여부를 잘 판단 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온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의대 정시는 39개 대학에서 1166명을 선발한다. 군별로는 가군이 17개 대학 551명으로 가장 많고, 나군에서 15개 대학 470명, 다군에서 7개 대학 145명을 뽑는다. 올해 모집군에 변화가 있는 대학은 아주대와 제주대다. 아주대는 가군에서 나군으로, 제주대는 다군에서 나군으로 모집군을 변경했다.

가군은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 등 다수 국립대와 가천대·가톨릭대·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한양대 등 주요 의대에서 학생을 선발한다. 선



수험생과 학부모가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열린 종로학원 2023학년도 정시지원전략 설명회에서 배치표를 보고 있다.

발인원도 일반전형 410명, 지역인재전형 139명으로 타군보다 선발대학과 모집인원이 가장 많다. 나군은 올해 전형방법이 변경된 서울대와 함께 경희대·아주대·이화여대·중앙대 등에서 수험생을 선발하고 있다.

의대 입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지역인재 전형 확대다. 지역인재 전형은 지원 자격 제한으로 일반 전형보다 합격선이 낮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지역 수험생들에게는 의대 진학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인제대(지역인재 15명), 건국대(글로벌·지역인재 5명), 부산대(지역인재 20명), 영남대(지역인재 15명), 동국대(WISE·지역인재 2명)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경상국립대·동아대·전남대·전북대·조선대·충남대·제주대·충북대·고신대에서는 2022학년도에 이어 지역인재전형이 시행된다.

의대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능으로만 학생을 뽑는다. 단 서울대는 올해 정시에서

지역균형전형이 신설돼 수능 60%와 교과평가 40%에 면접으로 전형이 실시된다. 면접은 P/F제(합격과 불합격만으로 구분하는 제도)로 진행된다. 일반전형도 1단계는 수능으로, 2단계는 수능 80%와 교과평가 20%, 면접(P/F)으로 시행된다. 아주대는 수능 95%와 면접 5%를, 연세대는 2단계에서 면접을 점수화해 반영한다.

과목별 환산점수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대 선발도 다른 자연계 학과와 동일하게 수학과 과탐 비중이 높은 편이고, 미적분 또는 기하와 과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도 있어 대학별 환산점수에 따라 전략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학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있는 곳은 강원대·경상국립대·순천향대다. 이 대학들은 미적분 또는 기하에 10% 가산점을 부여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의대의 경우 선발인원 모집군, 전형방법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지원할 대학을 선정할 때 전형 방법을 잘 확인해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로스쿨 국가장학금 저소득층 전액지원

23일까지 신청 접수

교육부는 2023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국가장학금 신청을 7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소득구간 연계를 바탕으로 로스쿨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적 능력과 열정은 있으나 학비 부담으로 로스쿨에 진학하기 힘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로스쿨 국가장학금은 학생들이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해 법조인으로 사회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로스쿨 국가장학금의 경우 지난해 기준 약 304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국고에서 49억 원, 대학 자체에서 255억 원을 보조했다. 국고 지원액의 경우 2020년 48억 원에서 2021년 49억 원, 올해 66억 원, 내년 75억 원(예정)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이번 로스쿨 국가장학금은 로스쿨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은 2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2차 신청은 내년 1월 4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두 차례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3부간 이하의 학생들은 국고로 전액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 3구간을 초과하는 학생들은 재학(또는 예정) 중인 학교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차등 지원한다.

로스쿨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내년 1월 17일 오후 6시까지 가 구원 정보 제공 동의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손현경 기자 son89@

서울 고교 신입생 모집... 자사고·외고 '경쟁률 미달' 설욕할까

일반 209개·자사고 17개·외고 6개 이과중심 자사고 경쟁률 반등할 듯

7일부터 서울 소재 일반고와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후기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이 시작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9일까지 일반고 209개, 자사고 17개, 외국어고 6개, 국제고 1개 등 총 235개교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한다.

최근 연이은 '미달 사태'로 자존심을 구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부터 9일까지 서울 지역 교육감 선발

후기고(일반고), 자사고, 특수목적고(특목고) 등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이번에 신입생을 모집하는 서울시 고등학교는 일반고 209개교, 자사고 17개교, 외고 6개교, 국제고 1개교 등 총 235개교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학교장 선발 후기고'는 별도의 선발 전형을 운영하며, 교육청은 209개 일반고 원서를 접수한다.

후기 일반고 모집엔 총 두 단계가 있다. 우선 특성화고, 과학고, 예술고 등 전기고등학교 전형에 선발된 학생은 후기고 전형 자체에서 제외된다.

1단계에선 서울 전체 일반고 중 서로 다른 2개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이때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도 일반고에 지

원할 수 있지만, 1단계가 아닌 2단계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2단계는 서울 전체가 아닌 거주지 학군 내에서 서로 다른 2개교를 선택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반고 배정은 1·2단계 모두 지망 순위에 따른 전산추첨으로 진행된다.

고입 결과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2023년 1월 2일 합격자를 먼저 발표한다. 일반고는 배정 대상을 내년 1월 6일, 배정 학교를 같은 해 2월 2일 통지할 계획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일부 자사고와 외고는 신입생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 애를 먹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2학년도에 서울 자사고 17곳 중 4곳이 신입생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 이 중 경쟁률이 0.46대 1

로 가장 낮았던 장훈고는 3년 연속 '미달'의 여파로 올해 7월 일반고 전환을 교육청에 신청했다.

서울 소재 외고 6곳도 올해 2곳이 모집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 2022학년도 서울지역 외고 경쟁률은 1.12대 1이었다.

다만 입시 전문가는 2023학년도에 경우 자사고·외고의 경쟁률이 소폭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과 선호 현상으로 이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사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평균 경쟁률은 높아지겠지만, 인기 학교와 비인기 학교 간 경쟁률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www.amarant10.com | 대표번호 1688-5000

DOUZ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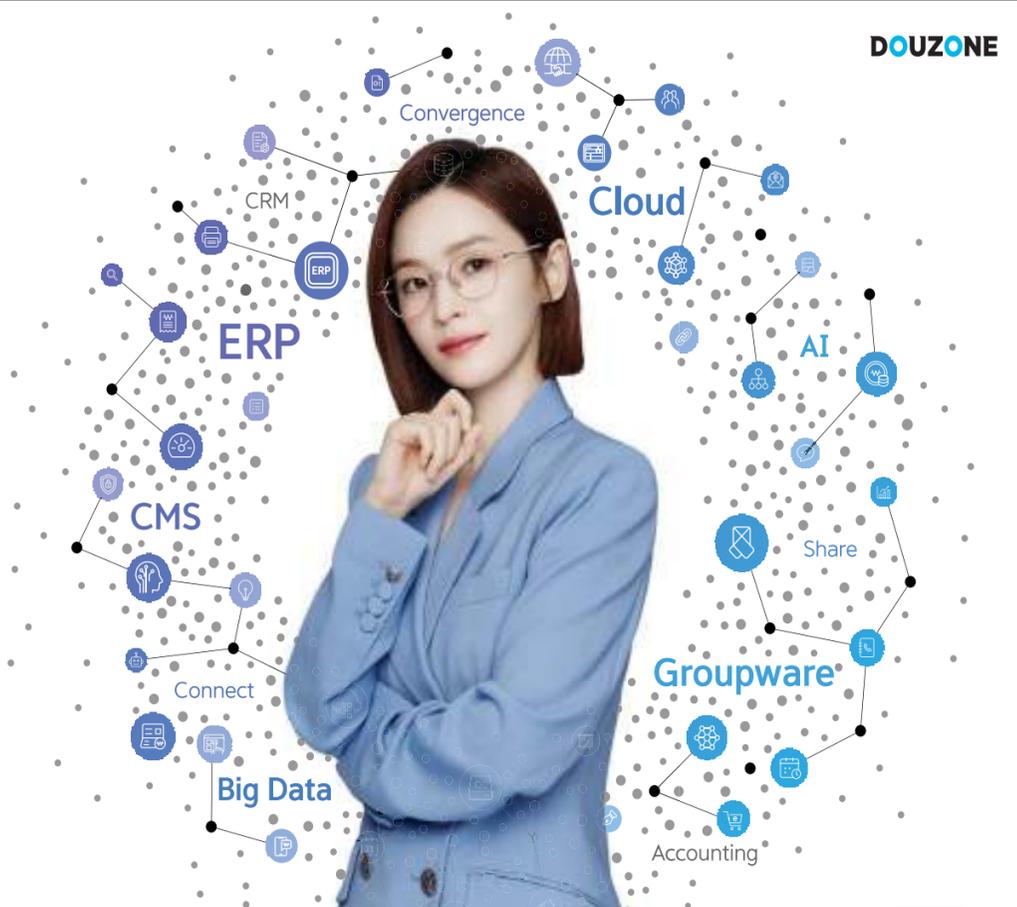
비즈니스의 미래는 바로 지금부터

ERP, 그룹웨어, 문서관리 솔루션을 통합한
올인원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의 탄생-

Amaranth 10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Amaranth 10 더 알아보기



새로운 차원의 융합-연결-공유를 통해
일하는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꿉니다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하나에 담아
어떤 업무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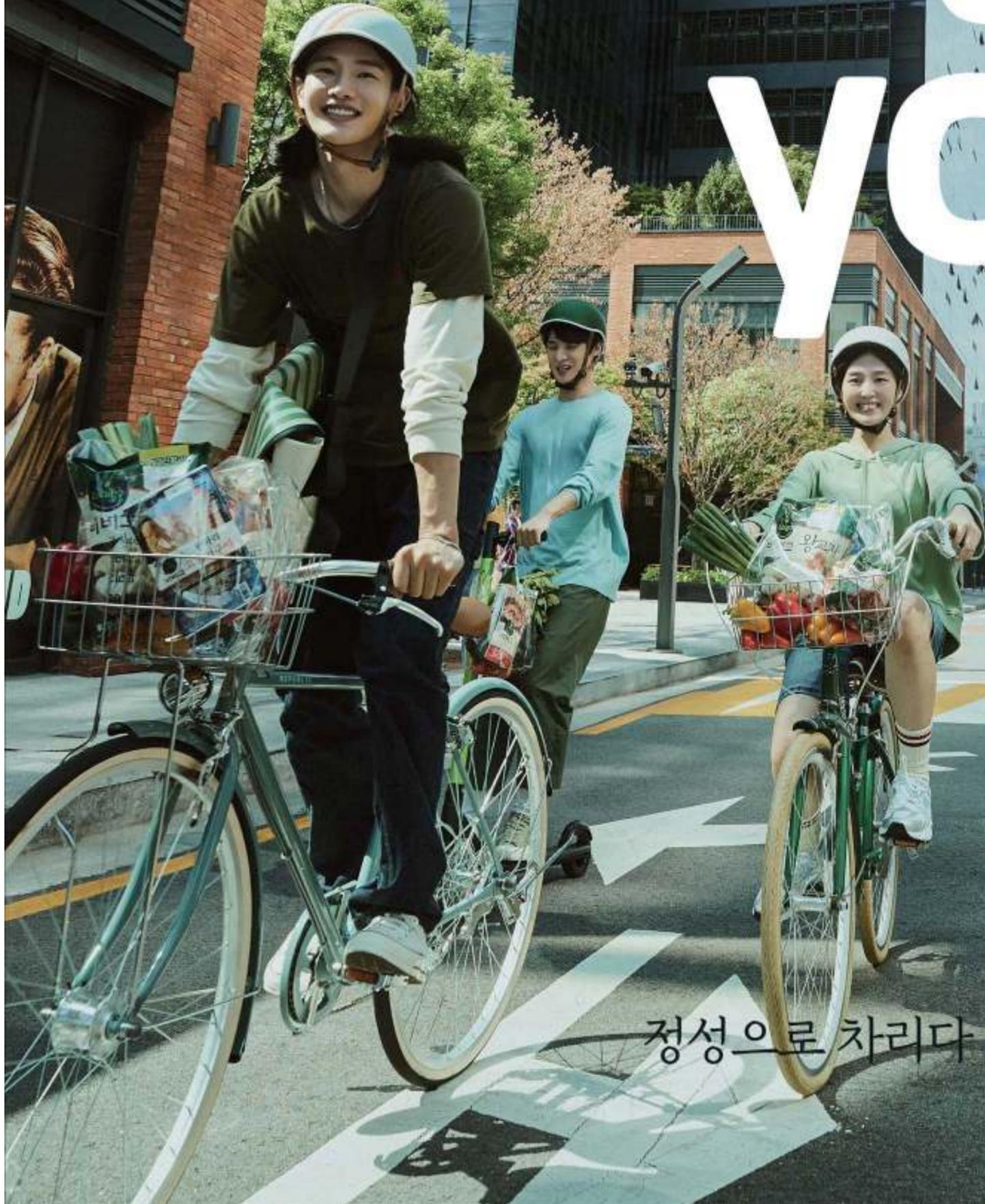
업무속도는 혁신적으로 빨라지고 데이터의
공유부터 관리까지 편리해집니다

솔루션 관련 비용 절감은 물론, 불필요하게
낭비되었던 업무시간도 절약됩니다

- 회계관리
- HR
- Groupware(UC)
- 임직원 업무관리
- CRM
- 웹오피스(문서 관리)

bibigo to you

비비고가 함께 갈게요
따뜻한 밥 한끼와 맛있는 대화
소중한 사람이 기다리는
그 곳으로



정성으로 차리다



비비고

“바이탈케어로 병원 내 사망 조기 예방 지원”

‘의료 시기술 전문’ 김광준 에이아이트릭스 대표

생체신호·혈액검사 등 19개 데이터 활용 환자 상태 예측
요양시설·왕진 홈케어 시장도 진출...FDA 승인 진행 중

“인공지능(AI)이 가진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임상진료에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6년을 매달렸습니다. 오랫동안 안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의료 AI기술 전문기업 에이아이트릭스 김광준 대표(세브란스병원 노년내과 부교수·사진)는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자의 상태 악화 예측으로 진단을 돕는 AI 소프트웨어 ‘바이탈케어’를 소개하며 “예기치 않는 병원 내 사망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바이탈케어’는 6가지 생체신호와 11가지 혈액검사 결과 등 총 19개의 종합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AI 모니터 솔루션이다. 중환자실 환자의 6시간 이내 사망, 일반병동 환자의 6시간 이내 사망, 예기치 않은 중환자실 전실, 심정지 및 4시간 이내 패혈증 발생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다.

솔루션 개발에 6년을 투자하고 지속적인 기술 검증으로 10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응급상황 예측 솔루션 허가를 받았다. 식약처 허가 근거가 된 3건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일반병동 내 급성 중증 이벤트, 패혈증, 중환자실에서의 사망예측 정확도 모두 기존 환자 평가방식인 조기경보점수(NEWS Score)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현재 강남세브란스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암센터에서 바이탈케어를 사용 중이다.

김 대표는 “AI를 활용해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의료진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이탈케어를 개발했다”면서 “유수의 병원, 기업에서 우리 기술을 활용하면서 협업하고 있다. 협업기관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기술 검증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



고 말했다. 이날 정경수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조교수는 “환자가 중증으로 가는 단계를 놓치면 예후는 급격히 안 좋아진다. AI를 활용하면 어떠한 인자가 환자 상태에 영향을 줬는지 파악할 수 있다. 예측을 해야 조기에 진찰이 가능하고, 진단을 해야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병원에서 모든 병실을 중환자실로 꾸릴 수 없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환자에게

이를 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환자의 생체정보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바이탈케어는 생체신호뿐 아니라 혈액검사까지 추가해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환자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에이아이트릭스는 해외진출에도 나선다. 안병은 에이아이트릭스 총괄은 “해외에서도 성능 검증을 완료했다. 임상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자신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바이탈케어의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및 미국 식품의약품(FDA) 승인을 진행하고 있다. 김 대표는 “생체 신호기술력은 이미 국내외 다수 대학 및 병원과의 파트너십과 공동 연구를 통해 우수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바이탈케어의 사용 범위도 확대한다. 김 대표는 “현재 병원 사용으로만 국한된 상태지만, 요양시설·지역보건기관까지 확대하고 더 나아가 왕진 등 홈케어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이라며 “높은 수준의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사진제공 에이아이트릭스

‘초격차’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대한민국 산업기술대전 대통령상



오른쪽부터 지현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기획팀장 부사장,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김지영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DRAM개발실 DRAM PE2팀장 상무. 사진제공 삼성전자

메모리반도체 1위를 수성 중인 삼성전자가 초격차 기술력과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7일 메모리사업부의 ‘D1a 기술’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2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D1a 기술은 세계 최초 최선단 14나노 기반의 고용량·초고속 D램이다. 멀티 EUV(극외선) 기반 패터닝 기술과 새로운 셀 트랜지스터 및 캐패시터 소자를 적용했다.

이날 홍영기 글로벌제조&인프라총괄 파운드리 YE(수출개신)팀장 부사장이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강태우 기자 burning@

정하준 LG유플러스 상무
‘통신재난 예방’ 과기장관상



LG유플러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제17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에서 정하준(사진) 네트워크품질담당 상무가 장관상(개인공로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정하준 상무는 LG유플러스의 통신재난 관리 책임자로, 대형 통신장애 및 통신재난 예방활동을 통해 대국민 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선준 기자 tatio@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어워드
SK텔레콤, 기업부문서 수상



기후변화센터가 창립 14주년을 맞아 5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엠베서더 서울 풀만에서 제12회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어워드 시상식을 열었다.<사진>

올해엔 △기업 부문 SK텔레콤(대표이사 유영상), 에이치투 △기관 부문 경북대학교(캠페리소총리추진단장 박춘옥) △지자체 부문 화성시(시장 정명근) △개인 부문 김명진 한국술사랑청소년단 이사장 △청년 부문 유튜브 크리에이터 안혜미, 맹지혜가 각각 선정됐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사진제공 기후변화센터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
NYT ‘올해 10대 영화’에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사진)이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뽑은 ‘올해 10대 영화’에 이름을 올렸다. 6일(현지시간) NYT는 “2022년 최고의 영화”라며 공동 수석 영화평론가인 마블라 다기스와 A.O.스콧이 각각 선정한 ‘올해 10대 영화’ 목록을 공개했다.

다기스는 ‘헤어질 결심’을 8번째 ‘최고의 영화’로 꼽으며 “미로와 같은 영화”라고 소개했다. 다기스는 의문스러운 여성에 대한 남성 탐정의 집착을 그렸다는 지점에서 앨프레드 히치콕의 명작 ‘현기증’을 언급하며 “헤어질 결심’은 전개될수록 독특하게 뒤틀린 자신만의 리듬을 보여준다. 영화의 감정적 초점은 집착하는 연인에서 거침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시선의 대상으로 점차 옮겨간다. 박 감독의 영리한 오마주는 가슴 아픈 응수로 변한다”고 평했다.

한편 ‘올해 10대 영화’에는 ‘헤어질 결심’을 비롯해 ‘에오’(에지 스킨리프스키), ‘쁘띠 마방’(셀린 시아마), ‘놈’(조던 필), ‘노 베어스’(자파르 파나히), ‘키미’(스티븐 소더버그), ‘디 이터널 도터’(조 안나 호그), ‘레벤랑’(오드리 디안), ‘모든 아름다움과 유희사태’(로라 포이트라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장유진 기자 yxxj@

이정애 LG생활건강 사장 취임 후 첫 화두는 ‘소통’

조직 리더들에게 “책임에 무게 둔 리더십 발휘” 강조

이정애(사진) LG생활건강 신임 사장이 취임 후 첫 임직원 인사의 화두로 ‘소통’을 강조했다.

7일 LG생활건강은 이 사장이 6일 오후 사내 게시판 및 임직원들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개한 첫인사 영상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원, 부문장, 팀장 등 조직 리더들을 향해 “구성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 얘기를 귀담아듣는 것부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 사장은 리더들에게 “상황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설

명하고 설득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직 구성원 전원을 향해선 “리더들이 이런 노력을 더 열심히 하고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정적 선입견이나 냉소적인 태도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자 마음을 열어달라. 제가 먼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국내외의 어려운 사업 환경 극복을 위해서는 LG생활건강 구성원들이 이른바 ‘원 팀(One team)’이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사장은 리더들에게 “본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권한을 수행하되 책임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고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어 사내 구성원들에게는 “우리 모두가 회사를 위한다는 생각을 경계하고 나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마지막으로 임직원들에게 “저에게는 1만2000명의 든든한 뒷배, 여러분이 있다”며 “저 또한 여러분의 뒷배가 되겠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고객, 소비자, 여러분을 바라보고 진솔하게 소통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마무리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2022 대한민국식품명인, ‘가리구이’ 오명숙·‘홍삼’ 송인생 씨

올해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전통 요리법인 ‘가리구이’의 오명숙(사진 왼쪽) 씨와 전통 방식으로 홍삼을 재배하는 송인생(오른쪽) 씨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2명을 새로 지정하고, 7일 지정서를 수여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전통식품산업의 활성화와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식품명인을 지정해 육성하는 제도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79명이 활동 중이다.

이번에 지정된 오명숙 명인의 지정 품목은 ‘가리구이(떡갈비)’다. 오 명인은 조선 요리법인 ‘섭산적’, 시의전서와 조선요리학의 가리구이와 유사하게 조리법을 복원하고 있다. 송 명인의 지정 품목은 홍삼으로 소호당집에 있는 인삼재배법과 홍삼 제조법에 기갑해 복원했다. 송 명인의 부친은 고(故) 송화수 명인으로, 대를 이어 식품명인이 됐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이 보유한 기능을 후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전수자 장려금을 지원하고 식품명인의 전통 제조법 등을 영



상과 도서로 제작하는 기록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석 등 명절시기 전시 박람회 참가, 홍보·마케팅 전문 자문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스마트 도시팀장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 우종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경영본부장 김현기 △정책본부 대외협력부장 김혜진

◆다우키움그룹 <다우기술> ◇상무보 승진 △전영태 ◇이사 승진 △염용흠 △김정우 △정은중 ◇이사대우 승진 △김재환 △권수영 <키다리스튜디오> ◇전무 승진 △권순진 ◇이사 승진 △손국환 ◇이사대우 승진 △윤지은 <사람인HR> ◇이사 승

진 △김강운 △남광현 △김기남 <한국정보인증> ◇상무 승진 △김재중 <키움이앤에스> ◇이사대우 승진 △김진우 <키움증권> ◇부사장 승진 △염주성 △전무 승진 △김희재 ◇상무 승진 △정병선 ◇이사 승진 △서대권 △김경주 △이원진 △염명훈 ◇이사대우 승진 △홍완기 △박영민 △심창섭 △성혜정 △조영실 <키움투자자산운용> ◇전무 승진 △장정명 ◇상무 승진 △이용진 ◇상무보 승진 △김상미 ◇이사 승진 △박세중 ◇이사대우 승진 △이동훈 △김광수 <키움저축은행> ◇상무 승진 △조준범 △김영락 ◇이사대우 승진 △고원태

<키움에스저축은행> ◇부사장 승진 △임경호 ◇이사 승진 △이덕우 ◇이사대우 승진 △박상복 <키움인베스트먼트> ◇상무 승진 △고강녕 ◇상무보 승진 △강민수 <키움캐피탈> ◇이사 승진 △김우석 <키움에프앤아이> ◇이사대우 승진 △나중현

◆광동제약 및 계열사 ◇광동제약 △문성규 부사장(생산본부장) △이재주 전무이사(전략기획실장) ◇케이디인베스트먼트 △최재원 전무이사(투자운영본부장) ◇코리아이플랫폼 △김무삼 상무이사(사업전략실장)

◆유틸렉스 △사장 유연호

부음

▲구자성(영암신흥교회 담임목사) 씨 별세, 김선영 씨 남편상, 구성현(이투데이 부동산부장)·성호 씨 부친상, 이슬비(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세조사관) 씨 시부상 = 7일, 영암농협장례식장 1호실, 발인 9일, 061-472-5544

▲유축희 씨 별세, 정해성 씨 부인상, 정소영·희정(씨티은행 부행장)·채영 씨 모친상, 전병하(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정필욱(강북삼성병원 신경과장)·전진호(삼성전자 공정개발실 수석) 씨 장모

상 = 6일, 서대문적십자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02-2002-8444

▲이옥남 씨 별세, 김진상(전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원상·윤상 씨 모친상, 한윤미·추명주 씨 시모상 = 7일, 대구의료원 국화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9일 오전 11시 30분, 053-560-9511

▲강신용 씨 별세, 강정원(문화체육관광부대변인)·승원(평촌고교사)·중원(중앙선관위 사무관) 씨 부친상, 박인혜·이지연(인천정보과학고 교사)·홍선영 씨 시부상 = 6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02-3010-2000

자본시장 속으로



박 동 호 회계사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테슬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

10월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는 세계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 트위터를 50조 원 넘게 들여 인수했다. 서서히 우하향하던 테슬라의 주가는 트위터 인수 후 하락 폭이 더욱 커지며 어느새 고점 대비 반 토막이 난 상황이다. 과연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테슬라 기업가치에 악재로 작용했을까?

트위터 인수 후 테슬라와 트위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회사의 최대주주와 CEO가 일론 머스크로 갔다는 것 외에는 두 회사 간 아무 관계가 없다. 만약 테슬라가 트위터를 인수했다면 지분율에 따라 자회사나 관계 기업이 됐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테슬라가 보유 중인 현금으로 트위터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대개 50% 초과)로 주식을 인수했다면 테슬라는 트위터의 지배기업(모회사)이 되고 트위터는 테슬라의 종속기업(자회사)이 된다. 그러면 두 회사는 합쳐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한다. 법적으로는 다른 기업이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나로 보는 것이다. 이런 재무제표를 가리켜 연결재무제표

라고 한다. 우리나라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상장기업들 모두 종속기업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한다. 즉 지배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도 종속기업의 사업이 잘 안 되면 회사 전체 실적이 악화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만약 테슬라가 보유 중인 현금으로 트위터의 지분을 인수하는데 지배권 확보까지는 어렵고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대개 20% 이상)로 인수했다면 둘 사이의 관계 기업이 된다. 20%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면 이사회에 구성원으로 중요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회계적으로는 지분법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테슬라가 트위터의 지분을 20% 인수했는데 트위터가 100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면 그 중 20%인 20억 원은 테슬라의 이익이 되는 것이다. 재무제표를 합쳐서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관계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지분율만큼 가져오는 셈이다. 우량한 관계기업을 갖고 있다면 회사 이익 증대에 기여가 되지만 큰 폭의 적자를 내는 관계기업을 보유하면 회사의 순이익도 줄게 된다.

오로지 일론 머스크의 개인 자금으로 트위터를 인수했기 때문에 두 회사의 재무제표는 합치지도 않고 트위터의 손익이 테슬라에 반영되지도 않는다. 즉 트위터의 실적이 악화해도 테슬라의 재무제표에는 영향이 없다.

그런데 왜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 우하향하고 있을까? 시장에서는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 가장 큰 부분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 매각이다. 아무래도 개인 입장에서 목돈을 마련해서 기업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식을 팔았는데 시장에서는 악재로 본 것이다. 좋은 주식이면 절대 안 팔 텐데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이니까 파는 것이 아니냐는 관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가총액 800조 원대 규모를 생각하면 중요해 보이지는 않는다. 일론 머스크가 최대주주지만 지분율은 14%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뱅크드 그룹이나 블랙록펀드 등 대형 기관투자자나 뮤추얼펀드 몇 군데가 보유한 지분 합계보다 적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오히려 중심의 지배구조가 아니고 펀드 중심이라 이사회 권한이 강하다. 생전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최대주주가 아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등도 창업주 일가의 지분이 없거나 작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되어서 주가가 쭉쭉 올라간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같이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큰 이슈는 아니다. 그런 점들 보다는 계속되는 차량 관련 사고와 대규모 리콜, 중국 봉쇄, 전기차 경쟁사들의 선전이 얼마나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는지를 더 집중해야 한다.

테슬라의 주가수익비율(PER)이 200배가 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50배 수준으로 내려왔다. 성장주는 고PER가 용인이 되지만 높은 주가수익비율만큼의 성장률이 나와야 비싼 가격도 합당해진다. 실적 성장률이 둔화하기 시작하면 주가는 급속도로 꺾이고 만다. 우리보다 수십 배 이상 큰 미국 기업들을 분석해 보면 테마나 재료보다는 실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설적인 투자자인 워런버핏이나 피터린치가 기업의 기초체력(Fundamental)에만 집중하라고 강조한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같이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큰 이슈는 아니다. 그런 점들보다는 계속되는 차량 관련 사고와 대규모 리콜, 중국 봉쇄, 전기차 경쟁사들의 선전이 얼마나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는지를 더 집중해야 한다.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정 대 영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화물연대와 정부, 불법파업과 위헌적 명령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미치고 있다며 파업 주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러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 양측은 서로를 '불법파업'과 '위헌적 명령'을 하는 집단으로 규정하며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화물연대 사이에 안전운임제의 효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 부분에서의 의견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2020년에는 관련 사고가 줄었으나, 2021년에는 오히려 사고가 늘어났다는 점을 들어 안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음에 주목하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사고 원인이 되는 과적과 과로 등이 줄었다는 점을 들어 '사고의 원인 제거에 효과'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원인 제거가 사고 감소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곳은 없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안전운임제의 시행이 관련 화물차 기사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해 주었다는 것이다. 낮은 시급과 높은 업무 강도에 몸부림치던 이들이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장받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없어지게 된다면 화물차 기사들은 화주와 직접 운임 협상을 해야 할 것인데, 화주들이 운임 비용이 크게 높아졌다는 이유로 해당 제도 유지에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도 폐지 이후 화물 운임의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과로, 과속, 과적의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시장의 조정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환경이 열악하고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의 조정 기능이 잘 작동한다면, 화물차 기사들은 다른 노동시장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화물차 기사의 공급이 줄어 운임의 단가는 올라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 기능이 잘 작동되어 왔다면 2008년부터는

의되었던 표준운임제가 12년이 지나 안전운임제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화주의 시장지배력이 과도하게 높아 시장의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는 시장실패의 상황이라면, 사회후생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필수적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기존에 약속했던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연장 기간에 철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고의 원인은 제거되고 있으나 오히려 사고 건수가 증가한 이유를 파악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가 고민되어야 한다. 동시에 시장 상황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시장의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려면 안전운임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공급자(차주)와 수요자(화주) 사이의 시장지배력이 과도하게 비대칭적이지 않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운임이나 임금협상의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열악한 환경의 균형, 그 시장으로의 회귀는 불법과 위헌보다 무서운 재앙일 수 있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잔 시벨리우스 명인 "비평가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라. 비평가를 찬양하는 동상이 세워진 적은 없다." 핀란드 음악가다. 20세기 음악이면서도 핀란드의 민족성과 풍토성에 깊이 뿌리박은 그의 음악은 후기 낭만파의 음악을 이어받고 발전시켰다는 평을 듣는다. 애국심의 결정체인 그의 대표작 '핀란드야'는 국민 찬가로 선정돼 평생 연금을 받았다. 핀란드 정부는 92세의 고령으로 세계인의 아낌을 받으며 세상을 뜬 그에게 국장(國葬)의 예의를 다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865~1957.

☆ 고사성어 / 불세출(不世出) 세상에 좀처럼 나타나지 않을 만큼 뛰어난 뜻을 뜻한다. 사기(史記) 회음후전(淮陰侯傳)에 나온다. 초한(楚漢) 전쟁 시 괴통(鄒通)이 한신(韓信)에게 한 말에서 유래했다. 괴통은 "신은 '용기와 지략으로 군주를 떨게 하는 자는 몸이 위대롭고, 공로가 천하를 뒤덮는 자는 상을 주지 않는다'라고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죽히의 공로는 천하에 돌도 없고, 지략은 불세출입니다[此所謂功無二於天下 而略不世出者也]"라며 한나라를 배반해 하늘이 준 기회를 잡으라고 권유했다. 한신은 괴통의 설득을 듣지 않고 한왕에 충성하지만, 한왕 유방이 한신을 두려워해 한신의 군대를 빼앗고 한신을 초왕으로 봉했다.

☆ 시사상식 / 모모세대 모모는 모어 모바일(More Mobile) 세대의 줄임말. TV보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와 동영상 콘텐츠를 즐기는 1990년 이후 출생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과 더불어 나타난 새로운 세대인 이들은 유튜브 등의 동영상 사이트를 자주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물건 구매나 소통, 정보를 얻는 대부분의 일상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며 이들에게 카카오톡, 라인, 인스타그램 DM, 페이스북 메신저 등 메시징 서비스와 SNS는 필수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조카 한자어 족하(足下)에서 온 말이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이 민 재 / 산업부

손흥민과 현대차그룹에만 기대지 말자

거는 우리나라보다 대표팀 대다수가 유럽 파로 구성된 일본 대표팀의 전력 강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구성원의 전력이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산업도 마찬가지다. 소수의 큰 기업만으로는 산업 전체가 질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명실상부 국내 자동차산업의 자랑스러운 슈퍼스타 현대자동차그룹은 올해 상반기 완성차 기업 중 글로벌 판매 3위를 기록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반면 국내 자동차산업의 기반인 대다수의 부품 기업들은

조용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전기차 등 미래차 전환에 대비할 여유와 역량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동차산업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부품 기업 중 72.6%는 미래차 대비에 '현재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계획이 없는 기업 중 과반수가 미래차 분야로 진출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나 자금 부족(42.5%), 정보 부족(32.2%) 등을 이유로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전기차 전환에 따라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엔진, 동력전달 등 관련 기업이 부품 기

업의 40%를 넘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부품 기업의 최소 10%, 최대 40%가 미래차 전환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이는 고스란히 관련 인력의 이탈로 이어지고, 자동차 산업의 인력 감소와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 국내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도와 현대차그룹과 함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카타르 여정을 마친 27명의 대표팀처럼, 완성차·부품 기업 모두가 각자의 경쟁력을 갖춰 16강보다 더 높은 곳에도 전하는 생태계를 기대해 본다. 2mj@



**안병익의
유러피언 드림**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27 몰려드는 난민, 분열되는 유럽

마음상담소

회복을 만드는 변수들

난민 유입 느는데 경제난...흔들리는 '연대'의 정신

“난민 신청자들을 받아준 프랑스에 감사하다.” “이탈리아가 신뢰를 줬다.”

지난달 11일, 프랑스는 234명(어린이 57명 포함)이 탄 오션바이킹(Ocean Viking)호가 남부 툴롱 항에 정박하도록 허용했다. 난민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지중해SOS'가 운영하는 이 선박은 10월 말부터 3주간 이탈리아 해안을 떠돌았다. 이탈리아가 정박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4명의 환자가 발생하자 프랑스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자국으로 오게 했다. 그러자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골치거리로 해결해준 프랑스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이탈리아 정부의 난민선 정박 거부와 관련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신뢰를 깎고 맹비난했다.

우파연립 伊 정부, 佛과 난민수용 갈등

지난 10월 말 이탈리아에서는 우파 연립 정부가 출범했다. 26%의 최고 지지율을 얻은 극우 이탈리아형제당의 조르자 멜로니가 총리가 됐고 반이민을 앞세운 동맹과 전진이탈리아당이 연정에 참여했다. 멜로니 총리는 취임 열흘 후 브뤼셀을 방문해 폰테어라이언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을 만나는 등 친유럽적 행보를 보이려 했다. 하지만 난민선의 정박 거부로 이탈리아는 프랑스는 물론이고 EU와도 갈등을 겪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개월간 9만 명이 넘는 난민 신청자들이 지중해를 통해 들어 왔다(유엔난민기구(UNHCR)는 이보다 1만 명 정도가 적다고 본다. 통계 참조). 일부는 비좁은 보트에, 일부는 오션바이킹호처럼 난민선에 구조돼 해안을 밟았다. 2016년 18만 1000명의 난민 신청자가 들어온 후 최고치다. 코로나19로 정부 재정을 쏨 떼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물가 폭등으로 이탈리아는 경제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연립정부가 들어섰다. 이탈리아 정부는 EU에 난민 배분에 관한 정책을 요청했지만 허사였다.

2015년 하반기 시리아 내전으로 독일은 100만 명에 가까운 중동 난민 신청자를 수용했다. 난민 신청자의 경우 첫 입국한 EU 회원국에서 수용과 난민 신청 등 모든 절차를 맡도록 하는 더블린협약이 있다. 이를 개정하려고 했으나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진전이 없다. 이탈리아나 그리스처럼 지중해 인근의 회원국에 난민 신청자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왔다. 회원국들이 합의해 난민 신청자 일부를 자발적으로 수용하곤 했다. 설령 이런 합의가 있어도 일부 난민 신청자들은 그들이 가고 싶은 회원국과 위에서 결정된 회원국이 다르기에 이동을 거부하는 예도 종종 있다.

페루시아외국어대의 세칠리아소틸로타

교수는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프랑스와의 갈등은 신연립 정부가 친EU정책을 표방했지만 경협이 없음을 드러냈다”며 “이민 문제를 정치화해 지지층 규합을 시도한다”고 평가했다. EU의 난민 문제는 그러나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獨·폴란드, 우크라 피란민 지원 어려움

UNHCR의 지난달 29일 통계에 따르면 789만여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전쟁을 피해 유럽의 여러 나라로 피란을 갔다. 이번 전쟁에서 '유럽'의 국경선이 된 폴란드

리의 경우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 독일은 전쟁 난민 한 명당 지원액을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 각종 지원을 감안하면 한 명에 연간 1만 달러, 100만 명의 난민이면 연간 100억 달러, 13조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대구시의 2022년 한 해 예산이 10조 원이 조금 넘는다.

이처럼 전쟁 난민이 폭증하는 바람에 폴란드와 독일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바르샤바에서는 난민 수용에 필요한 주택이 부족하다. 독일 베를린 시민들은 우크라이나 피란민이 몰려오기 전에도 주택난을 겪고 있었다. 시 외곽의 폐쇄된 테

대를 바란다. 하지만 난민 관련 연대가 EU 회원국 간에 실행된 적이 거의 없다. 설령 있더라도 최대 몇천 명 정도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독일은 -0.3% 성장률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EU 최대 경제대국 독일은 대러시아 가스 및 원유 의존도가 EU 평균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았다. 러시아산 가스 및 원유 공급이 거의 끊어지면서 물가는 폭등했고 제조업 강국 독일의 경제는 바닥을 칠 듯하다. 러시아산 원유를 정제하던 독일 북부의 슈베트 시에서는 10월부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위가 종종 열렸다. 이들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 금지해 일자리를 잃었다며 이를 규탄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도 요구했다. 유사한 시위가 독일 제2의 도시 라이프치히에서도 매주 월요일에 열린다. 급진좌파와 우파 등 매우 다양한 정치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을 반대한다. 이들은 가스 및 전기요금 폭등과 같은 서민 생활의 고통을 거론하며 “독일이 미국과 나토의 이익만을 위해 봉사 중”이라고 비판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제난 심화, 내년 겨울은 더 추울텐데

일단 올겨울은 그런대로 지나갈 수 있다. 독일을 비롯한 EU 회원국들이 주머니를 풀어 폭등한 가스 및 전기 요금을 일부 보전해줬다. 그리고 가스 비축도 서둘러 겨울나기는 가능하다. 그러나 전쟁이 내년 겨울까지 지속될 경우, 정부 주머니는 더 얹아질 터이고 폭등하는 물가만큼 임금은 오르지 않아 서민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2023년 전망에서 내년 겨울이 유럽에 훨씬 더 고통이 될 거라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군이 크름 반도 인근의 헤르손 시를 탈환해 승기를 잡으며 러시아가 점령한 나머지 3개 주에 대대적인 공세를 개시했다. 러시아는 미리 후퇴해 참호를 파고 장기전에 대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차 세계대전처럼 장기 소모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푸틴은 2024년 봄에 시작될 미국 대선전을 지켜보며 미국과 유럽의 분열을 기다릴 것으로 전략가들은 내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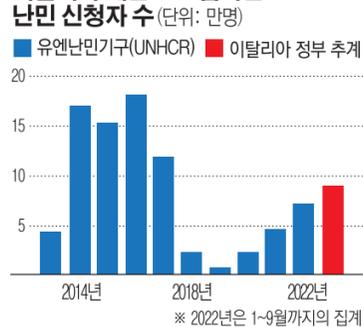
피란민에 물가 폭등에, EU 회원국들의 연대는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시민들의 인내심도 점차 한계에 다다를 듯하다. 이제 불확실성이 국제정치경제의 뉴노멀이 됐다. 시계가 극도로 불투명해지는데 내년도 우리 경제도 타격이 자못 크다. 위기 극복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리더십을 기대해본다.

팟캐스트 '인생의 유료록' 제작·진행자, '설록' 출판사 대표



지난달 22일 그리스 크레타섬 팔레오초라에서 이주자 500여 명이 태우고 지중해를 건너온 보트에서 난민들이 구조돼 물으로 내리고 있다. 중동 분쟁국가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난민의 유입에 유럽연합(EU) 국가들은 경제난과 각기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단일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팔레오초라(그리스)/AFP연합뉴스

이탈리아 해안으로 입국한 난민 신청자 수 (단위: 만명)



에서 152만여 명이 임시보호조치를 받고 있다. 그 다음이 독일로 102만1000여 명이다. 반면에 이탈리아는 16만5000여 명, 영국은 14만6000여 명, 프랑스는 11만 8900여 명이 체류 중이다. 임시보호조치는 최소 1년간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주며 연장이 가능하다. 이 조치를 인정받은 난민들은 그 체류 국가에서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으며 일도 할 수 있고, 어

겔공항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현재 1만 명이 수용돼 있다. 제대로 된 거주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 역시 어렵다. 특히 2015년에 입국한 난민까지 합하면 200만 명 넘는 난민이 독일로 들어왔다. 베를린 시뿐만 아니라 나머지 15개 주에서도 난민 수용에 힘들어한다. 작년 말 대구시 인구가 241만여 명 정도다. 대구시 인구 비슷한 난민이 독일로 들어와 적응 중이다.

전쟁 장기화...난민 논쟁 수면 위로

우크라이나 난민 중 상당수가 여성과 어린이이다. 같은 유럽인이고 푸틴의 침략 전쟁이라는 범죄 앞에서 유럽 각국은 인도주의 정신을 발휘해 피란민을 가까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전쟁이 최소 1년 넘게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쟁 난민의 보호와 관련된 논쟁은 이제 서서히 표면으로 나올 듯하다. 폴란드와 독일처럼 난민을 과중하게 받은 EU 회원국들은 드러내고 요구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회원국들의 연

이투데이

@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